



2016 부모교육 토론회

한국의 부모교육 현황과 미래의 발전방향 모색

일시: 2016, 9, 2(금) 14:00 - 17:00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정갑윤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관: (사)함께하는아버지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후워: 여성가족부















일 정

13:30-14:00	등 록				
	개회식				
	국민의례				
	인사말씀 정갑윤 / 국회의원				
14:00-14:20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축하말씀 강은희 /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 여성가족 위원장				
	진행 : 강찬호 / 중앙일보 논설위원				
	발제11 대한민국 부모교육의 현주소				
14:20-15:20	송혜림 / 울산대 교수				
11.20 10.20	발제2] 세계의 부모교육과 한국에의 전망: 부모교육에서 기족문화교육으로				
	정미리 / 가족문화연구소 '파밀리엔바움'소장				
	토론1] 부모교육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				
	이현아 / 서울대 강사				
	토론2]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제 구축				
	김혜준 /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15:20-16:20	토론3]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제 구축				
	조민경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학부모 지원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조훈희 / 교육부 학부모지원팀장				
16:20-17:00	종합토론 및 정리				





Contents

•	인사말씀 5
•	축하말씀 9
0	대한민국 부모교육의 현주소 - 송혜림 15
•	세계의 부모교육과 한국에의 전망 - 정미리 55
•	부모교육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 - 이현아 97
•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제 구축 - 감혜준 103
•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제 구축 - 조민경 109
•	학부모 지원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향 모색 – 조훈회 113





인사말씀

정갑윤 /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아버지들'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정갑윤입니다.

한국의 부모교육 현황을 살피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부모교육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뜻 깊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님, 강은희 여 성가족부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무를 맡아 수고해주신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님, 한국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강전항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송혜림 교수님, 정미리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최근 잇따른 폐륜적인 가족 범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2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 놀이문화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지목되지만, 무엇보다 가정의 해체가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성적이나 경제 수준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이들의 행복은 '부모'의 역할에 좌우되며,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인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족범죄 등은 가족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부모교육 시스템 잘 구축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선진 부모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용어사전에서 부모교육은 "교사이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부모들이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 관계를 이루어 나가 도록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건강한 가족공동체 회복의 시작인 부모교육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인 만큼, 전문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고견 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댁내에 늘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의 진행으로 울산대학교 송혜림 교수님의 발제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발제에 이어서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아버지교육의 의미와 가 치',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제 구축'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부모는 생각과 달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교육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하며, 부모와 자녀의행동을 긍정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의 부모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실질적인 제도와 체제를 구축해나가 부모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사후적인 접 근이 아닌 예방적인 차원의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 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말씀

강은희 / 여성가족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입니다.

부모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정갑윤 의원님, 유성엽 위원장님, 김혜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사건의 80%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족갈등은 부모의 자녀양육법에 대한 무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 짧은 시간 동안 가족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부모교육을 받는 것으로 아니라, 결혼 전부터 임신·출산기, 자녀 영유아기·학령기 등 생애주기별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모교육 토론회가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좋은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이 개발되는데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은 여성가족부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말씀

남인순 / 여성가족위원장

반갑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김혜준 대표님을 비롯한 (사)함께하는 아버지들과 강전항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그리고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과 정갑윤국회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한국의 부모교육 현황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부모교육토론회를 마련한 것을 무척 기쁘게생각하며,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리며, 바쁘심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06년 5,202건에서 2015년 1만 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울주와 칠곡 계모사건, 부천 토막살해사건, 신원영군 암매장 사건 등은 아동학대가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강력 범죄로까지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라는 국민 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 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 조기 발 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의 보호자에 체벌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선진적인 법적 기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신고 종합대책이 추진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지난해부터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피해아동 보호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었지만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일이 절실하며, 태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전문 인력의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방법 및 기술부족이 많으므로 가족이 아동보호의 보루 라는 점에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또 아동권리교육도 강화 하여 아동기부터 학대받지 않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함으로 써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2014년 81.8%, 2015년 79.8% 등 아동학대의 80% 가량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4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미숙'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양육기술에 대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동기 인성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며, 가족 내 인성교육자로서의 부모의 인성함양과 역할이 아동의 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서는 양육정보 제공뿐 아니라 상담과 심리교육을 통하여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족한 가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는 <이서현 보고서>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 교육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과 제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부모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으며,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자녀를 중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등 국가에서 아동에게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걸 맞는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우선 어린이집에 보낼 때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29일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르면 학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개선을 중장기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부모교육 토론회는 매우 고무적이며, 허심탄회 한 논의를 통하여 부모교육의 현실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발제를 맡아주신 송혜림 울산대 교수님과 정미리 가족문화연구소 파밀 리엔바움 소장님, 토론을 하여주실 이현아 서울대학교 강사님, 조민경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님, 조훈회 교육부 학부모지원팀장님께 감사드 립니다.

충격적인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으로 돈보다 안전





과 생명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모색하는 소 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회 입법 및 정책활동에 반영되고, 강은희 여성 가족부장관께서도 오셨는데 국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뜻 깊은 부모교육 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대한민국 부모교육의 현주소

송 혜 림 / 울산대교수















▶ 왜 또 다시, 그러나 새롭게 부모교육인가?

부모교육 강화 필요

-최근,자녀에 대한 부모의 유기,방임,학대,폭력,살인 등의 사건 부각 → -가정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가정생활의 일상성과 폐쇄성

가정은 날마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 사적인 단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힘듬

-자기독립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녀에게 부모역할 은 매우 결정적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해결과 치료가 힘듬.예방이 최선.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더욱 필요

▶ 왜 또 다시, 그러나 새롭게 부모교육인가?

부모의 자녀학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폭력, 유기, 방임 등에 대한 민감성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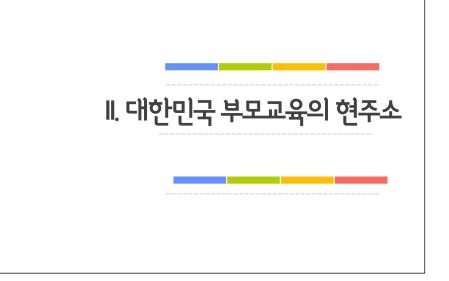
- -자녀는 부모의 소유 라는 잘못된 인식 내아이는 내맘대로
- -가족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관심, 해결책 마련
- 건강한 부모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필요





▶ 왜 또 다시, 그러나 새롭게 부모교육인가?

대한민국 부모교육의 현주소 분석 : 기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방안 등 에 대한 검토 →접근성, 이용도,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부모교육 활성화







발제내용 부모교육 부모교육 FGI 부모교육 현황 요구도 분석결과 개념 연구현황 정책현황 현장실무자 다양한 대상들이 갖는 부모교육 요구도 목표 전문가 부모역할 현장에서의 사례 결혼이민자여성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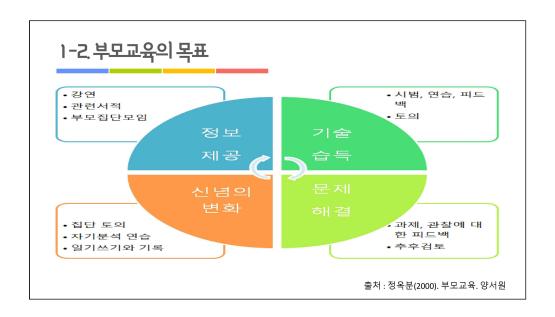




1-1.부모교육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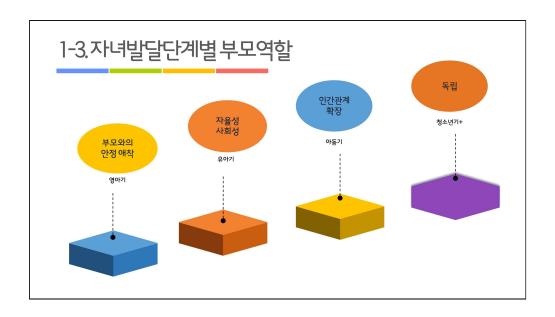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변화를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적 기술이나 작용

출처: 한국심리학회(2014). 심리학용어사전. http://www.koreanpsychology.or.kr.















발제 2. 부모교육 현황







2-2. 가족정책에서의 부모교육 - 건강가정기본계획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함께 가는 가족 2010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16~2020)







2-2. 가족정책에서의 부모교육 -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나. 직장 · 가정의 양립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2-1-1. 남성의 기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조성
- Ⅱ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도입
 - ②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Papa's Quota) 도입 검토
- 2-1-2. 남성의 가죽생활 참여 활성화
- ① 가사·양육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홍보
 -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②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촉진
 - 남성 육아휴직 활용 시례 발굴・홍보

- 2-1-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조성
 - ① 배우자출산간호휴가제 도입<완료> ② '부성 휴직제(Paternal Leave)' 활성화
- 2-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
- □ 가사・양육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버지 학교(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실시 ('09~-)
- ②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촉진
 - 2009년 공무원 육아휴직 활용실태
 조사 (*10.1)

2-2. 가족정책에서의 부모교육 - 제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절쾌 되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결쾌 목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길 만족도 제고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환충

1. 가족가치의 확산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2. 납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 자녀 돌봄 지원 강화 2-1. 차녀 돌봄지원의 다강화
2-2. 부모락받 지원
3. 다강한 가족의 덕광 강화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2. 다문화가족 및 취약가실을 위한
지원제계 구축
4. 가족원화적인 사회관경 조 4-1. 가족원화적인 지작관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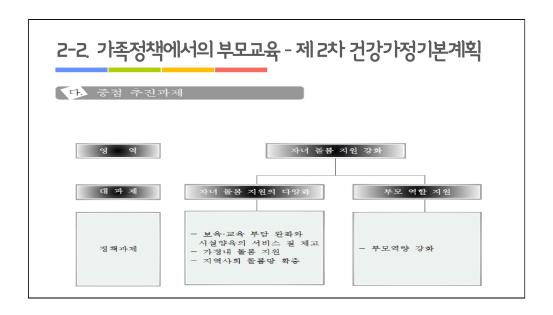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설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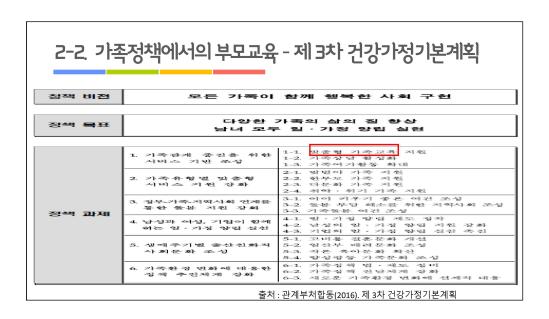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2-2. 가족정책에서의 부모교육 - 제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1-1, 맞춤형 가족교육 지원

- Ⅱ 가족교육 전문가 양성
- ② 가족교육 접근성 제고
- ③ 공교육 과정에 가족교육 확대
- ④ 가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2-2. 가족정책에서의 부모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 상승, 새로운 정책수요 예측
-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 부모역량 향상
- -건강한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 필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2016/3), 다문화 가족자녀의 성장주기별 지원정책 추진 결 정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민국 부모학교

"좋은부모 행복한아이"



롯데마트·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강신청 하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부모교육에서 시작해보세요!

고등가족용사단 모두가족용사단 모두가족용안이 아버자-자녀기 함께 하는 토요 프로그램 이이들을 공통력이나용된 공통력이나용된 가족들름 나눔 선애주기별 (호)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가족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가족교육 가족내 (호)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가족교육 기역사회 현의체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가족상당 - 무전우 가족상당 - 무전우 가족상당 - 무전우 가족상당 - 무전우 가족상당 - 무건지 나상당 - 무전우 가족상당 - 무건 가족상당 - 무건 가족상당 - 기록 가족상당 - 기록 가족상당 - 가족 사당의 난 프로그램 가족에 및 나눔행사 건강가정 관련 캠페인 등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

(34.)	2015년	<u>^</u> -	 수 전장가정지원	ALE-	8	+44

정역	시・군・구센터 공통사업			
가족 등 복	모두가족 봉사단	•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돌봄'을 구제로 전환하여 운영		
나눔 + 3가지 사업중	모두가족 중앙이	 전업구부와 맞벌이 구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핫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맛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2개시 선택	아버지-자너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1일 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이상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잡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로,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에비/신론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등 예비/부모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남성대상 교육	 아버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설대살 자기돈볼 교육 등 연간 20시간 이상 		
가족상단	가족(집단)상당	생애무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당사업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적 집근과 가족구성원이 함인 대상으로 하는 개발적 집근을 포한 기원을 가득하게 되지 않다 하는 통한적 점근을 포한 인간 상당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집단상당을 연간 2권 이상 반드시 포함 전		
기축문화	가족사랑의 날	 월1회, 수요일, 연간 20시간 이상 (회 참가자 상황 등 고려 요일변경 가능)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지역사회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연계 협약 및 연계사업		•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출처 : 여성가족부(2016). 2016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 구성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및 자원 연계



출처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6년도 사업 세부내용(가족영역)

가. 가족

구분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가족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프로그램	가족의사소통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아버지교육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등	연간 필수 20시간, 선택 30시간 이상 (이중언어코치 배치 센터는 공통필수 160시간 이상)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정보제공 온라인 네트웤 구축 및 홍보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사업 생활밀착형 서비스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좋은 부모 지원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 후원 및 특별 지원 나눔

미혼모부자가족지원 인식개선공모 캠페인

한부모학습지원사업 (좋은부모지원) 좋은부모 미래설계교육, 부모교육, 휴먼라이브러리, 검정고시 교과수업, EBS 온라인 · 모바일 교육

출처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이용정보 양육정보 맞춤형 부모교육 열린부모참여지원 맞춤형 양육서비스 부모교육자료실

2013년 12월 5일 개정 영 유아보육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가정의 육아지원기능 강화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학부모지원센터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학부모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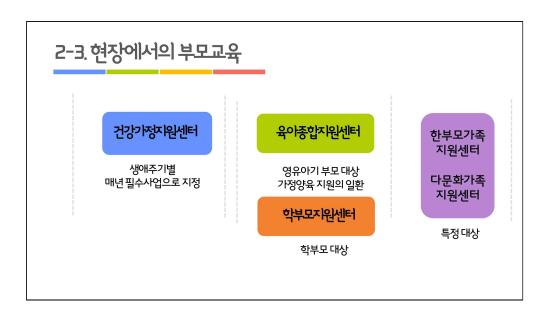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학부모지원센터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학교교육(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사례)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족 부모역할의 변화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가정생활주기별 발달과제 가족갈등 가족유대감 건강가정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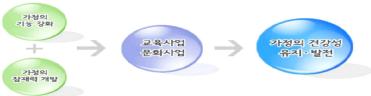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2008년설립)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의 기<mark>능을 유지하고 발전</mark>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시민단체사례

가건모의굿피운동

가건모는 2009년 좋은 부모되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건모의 굿피운동…굿피?대강령

"우리는 아래와 같이 좋은 부모가 될 것을 약속하며, 국가 사회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모역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 Pride 좋은 부모는 부모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 Acceptance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 ❖ Responsibility 좋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 Empowerment 좋은 부모는 건강한 부모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Neighborhood 좋은 부모는 이웃과 함께 한다.
- ❖ Time 좋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 ❖ Security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갖는다.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시민단체사례

가건모의 굿피운동…굿피7대강령

- ①신나는 부모(부모 됨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부모)
- ②참교육 부모 (사교육이나 경쟁적인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않는 부모)
- ③책임 있는 부모(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녀를 독립시킨 부모)
- ④노력하는 부모(부모교육이나 가족봉사참여 등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
- ⑤이웃 나눔 부모(가족품앗이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실천하는 부모)
- ⑥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평등하게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아버지)
- ⑦안전지킴이 부모(자녀와 가족을 둘러싼 지역과 환경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실천하는 부모)





어디까지가 학대인가?

자녀학대에 대한 감수성높이기

(사)가건모 굿피운동

- 추운 날 옷을 벗겨 베란다나 현관 앞에 세워 놓는다(1순위)
- 아이 앞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부수거나 애완동물을 때린다
- 아이 방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공부하게 하고 방문을 잠근다
- 초등생 아이, 성적 올리라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게 한다
- 아이 앞에서 부모가 아이 문제로 싸운다
- -공부를 못 하니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다고 말한다
- 졸려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각성에너지음료를 준다
- 말 안 들을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집에서 나가라고 한다
- 성적도 안 오르는데 학원비 주는 것도 아깝다고 말한다
- 공부, 학습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용돈을 안 준다

2-3.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 시민단체사례

- 좋은부모교육 및 아이함께키우기 품앗이 지원사업
- 사춘기 자녀와 아빠의 소통을 돕는 스포츠아버지교실
- 일가정양립 반반운동으로 좋은부모모델 제시
-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 건강한 가족정책의 비전제시 가족정책포럼

가건모의 좋은부모 지원 사업





2016년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좋은 부모(굿피) 교육 및 일만가구 굿피 문패달기

가건모의 좋은부모 지원 사업

KACE 부모교육

KACE(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4길 5-29 Web http://kace.or.kr Tel 02-424-8377 Fax 02-424-8378





KACE부모교육은?

KACE는 1989년부터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목표로 부모교육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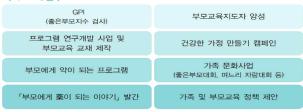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정서에 맞는 맞춤 부모교육 <<mark>부모에게 약이 되는 프로그램></mark>을 자체 개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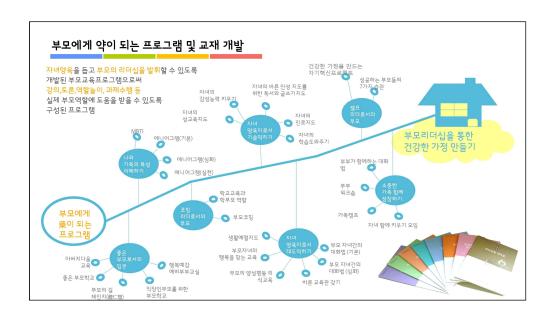
전국에 부모교육지도자를 양성하여 부모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부모교육사업의 전문화ㆍ체계화를 위해 2008년 'KACE부모리더십센터'를 발족하였으며,

현재 전국 31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활발히 부모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지식습득

자녀의 감성능력 키우기



5회(15시간)

8회(24시간)

부모에게 약이 되는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과정 좋은부모학교 부모교육 다양한 분야의 특강의 구성 학생학습자로서의 부모역할인식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의 길 체인지(體仁智)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부모역할을 몸튼튼 마음튼튼 공부튼튼의 관점으로 알아보기 6회(18시간) 좋은 부모로서의 아버지다움 교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대도, 진정한 의미의 부자아빠 되기, 아버지로서의 나이해/신뢰쌓기 5회(10시간) 입문 직장인부모를 위한 부모학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는 입문과정 4회/8시간) 행복예감 예비부부 교실 첫 출발하는 예비 신랑신부, 신혼부부를 위한 '새내기 부부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5회(15시간) 바른교육관 갖기 부모됨의 의미,잘사는 문제와 교육,삶과 공부,어머니의 교육열 등 5회(15시간) 부모자녀의 가족 내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 행복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 5회(15시간) 행복을 찾는 교육 부모자녀간의 대화법| 가정 내 일상대화의 분석,대화를 위한 기본태도,효과적인 대화법 6회(18시간) 자녀교윤의 자녀양육자로서 태도 익히기 가치관정립 및 의식변화 6회(18시간) 부모자녀간의 대화법 || 대화법| 수료자 대상의 실습위주의 심화과정 미래사회와 성역할의 변화,성의식과 성차별의 이해,가정에서의 양성평등, 부부의 의식이 자녀에게 미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5회(15시간) 생활예절지도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의 태도형성 8회(24시간) 1020부모 사춘기 청소년과 사추기 부모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 6회(18시간) 자녀의 진로지도 미래사회의 변화와 자녀이해, 행복한 삶과 직업적성, 자녀의 진로와 준비교육, 바람직한 진로지도 5회(15시간) 자녀의 학습도와주기 미래사회와 자녀교육, 학습의 뜻과 이론이해, 학습관련 요인들, 언어학습지도, 가정학습지도 방법 5회(15시간) 구체적 자녀양육 자녀양육자로서 기술 익히기 자녀의 성교육 지도 성과 성문화,성교육,성발달과 역할,성교육의 실제 5회(15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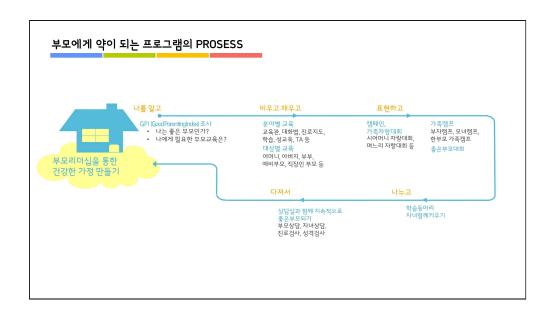
자녀의 바른 삶을 도와주는 독서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독서지도 및 글쓰기 지도법 글쓰기 지도

부모,자녀간의 감성능력 진단, 감성능력의 5개 영역능력개발

		되는 프로그			
evel	주제	목표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과정
			MBTI	성격 유형 알기, 성격유형에 따른 타인이해	4회(12시긴
	나와가족의	성격유형알기 유형에 따른 가족이해	에니어그램(기본)	에니어그램이란, 힘의 중심, 9가지 성격유형의 특성	6회(18시간
4	특성 이해하기		에니어그램(심화)	날개와 화살표, 각 유형의 신념, 자아의식과 행동양식	6회(18시긴
			자녀양육을 위한 에니어그램(실천편)	자녀의 유형특성에 따른 양육방법	5회(15시긴
		서의 가족관계의 역동이해리더십 배양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자기혁신 프로젝트	의사교류분석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의 자기이해, 효과적인 삶의 방식, 적극적인 인생 태도, 좋은 부모역할 수행	10회(30시
5	셀프리더로서의 부모		성공하는 부모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들을 위한 워크숍	10회(30시
			1020 부모	사춘기청소년과사추기부모의행복찾기프로젝트	6회(18시긴
_	코칭리더로서의	학부모 의식과	학교교육과 학부모 역할	학부모로서 학교교육의 변화이해,조력자로서의 학부모의 역할	2회(4시간
6	부모	역할 코치로서의 부모역할	부모코칭	가르치는 부모가 아닌 안내하는 부모로서의 역할훈련	6회(18시긴
			부부가 함께하는 대화법	부부간 일상대화분석,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	5회(15시긴
	소중한 가족 함께 성장하기	가족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	부부워크숍	부부의 의미 찾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1일, 1박29
7			가족캠프	가족공동체의식, 건강한가족 문화만들기	1일, 1박29
			자녀함께 키우기 모임	내자녀에서 우리자녀로 부모 역할 확대를 위한 소모임	매주 또는 격주













부모자녀 상담실 운영

- 부모대상: 부부, 부모-자녀관계의 갈등 해소를 통한 관계개선, 자녀의 진로, 학습문제 등
 자녀대상: 자기주도학습, 학교부적응, 집단따돌림(왕따), ADHD, 대인관계/의사소통 등
- ① 검사 성격유형검사, 심리검사, 진로적성탐색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학습유형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외



서울 (마포)02-332-9632 / (송파)02-4202-119, 경기(성남)031-705-4275 대전광역시 042-526-0082, 강원(원주)033-732-3525

좋은부모지수 개발 및 조사사업(Good Parenting Index)

자녀 교육관과 부모로서의 가치관 부모 자녀간의 대화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자녀학습지도 자녀 감상능력 개발

부모-자녀의 관계 자기혁신 리더십

부모코칭 리더십 자녀 생활예절 및 글쓰기 독서지도

- ? 부모진단 나는 좋은부모인가?
- 부모교육 컨설팅 나에게 필요한 부모교육은 무엇인가?

(사)함께하는아버지들







성격.미션.목표

- 사단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예정)





함께하는 사람들 명예이사장 정갑윤 前 국회부의장 최불암 방송인 고문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후원회장 김영기 ㈜휴롬 회장 자문위원장 이해명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김혜준 KACE 아버지다움연구소 소장 대표 이정일 ㈜아리바이오 대표이사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감사 김도영 CSR Forum 대표 박형준 ㈜Intruevine 대표 이주연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경규 前아람교육출판사 대표 이사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홍양표 한국좌우뇌교육계발연구소 소장 황동연 前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





주요 사업: Help Happy Fathering

- Agenda building
- 2. 교육. 상담
- 3. 아빠 커뮤니티 조성 및 컨설팅
- 4. 캠페인 (책읽어주는 아빠 등)
- 5. 행사 (올해의 아버지 선발대회, 아빠자랑대회, 놀부교실, 무인도 캠프, 물총싸움대회 등)
- 6. Fathering Kit(사회적기업 상품) 전시.판매

활동 실적

연구조시

- '아버지와 자녀의 인식' 여론조사 (2013, 아빠 1000명 & 자녀 500명 대상)
- 아버지다움 졍책토론회 (2013)
- '육아휴직' 관련 여론조사 (2016. 아빠 1000명 대상)
- 부모교육 정책토론회 (2016)

행사

- 아버지땡큐 콘서트 (2013)
- 아빠자랑대회 (2015, 2016)
- 아빠와 함께하는 편지.창작놀이 공모전 (2014, 2015, 2016)

Fathering Kit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선정 (2016)

아버지센터 추진





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맞춤형" 아버지교육 !

- 1. 예비아빠 🖙 Happy Fathering
- 2. 영유아 자녀 ☞ 新通Key
- 3. 사춘기 자녀 ☞ GRIT
- 4. 은퇴.실직.왕따 아버지 ☞ 꼰대의 소통비결

교육 프로그램

과정名 (h)	개요	구성
행복하게 아빠하기 (Happy Fathering) 2~3h	[특강] 행독한 아빠가 되기 위해 빈 도시 알아야 하는 아빠노릇 의 기본기, 어떤 아빠가 되어 야 할지 고민하는 (예비)아빠 를 위한 해심 강의!	• 부성과 모성의 차이 • 좋은 아빠 & 굿는 아빠 • 아버지 프레임 (아버지3.0)
아버지는 신통한 키 (新通key)! 2h/회 x 4회	[아버지교육 정규 프로그램] 아빠의 행복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아빠능력의 체계적인 업그레이드	
콘대의 소통 비결 2h/회 x 4회	[소통역량 강화 과정] 회사인간으로 살다가 가정의 왕따가 된 중년 아버지들 위 한 소통법, 은퇴를 했거나 앞 돈 아버지들의 가족내 제자 리 찾기	가족간 관계성 진단 공감능력 키우기 대화의 기술
GRIT, 행복한 성공의 비밀 2h/회 x 4회	[비인지능력 강화 프로그램] 행복도 성공도 약속해를 수 없는 학원 뺑뺑이의 대안 ! 자녀를 행복하게 성공시키고 싶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비인지능력의 이해와 훈련법	왜 비인지능력인가? 자기동기력 자기동기력 스트로 공부하는 동기 3.0 자기조절력 역당을 이기는 마음의 힘 대인관계력 대연관계号 대명성 실아가는 능력





교육 실적

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사업비(단위천원)
2013년	농수산식품진흥원	자녀와 함께하는 아버지교육	7.29~ 7.31	아버지와 자녀 가족캠프	23,672
2014년	안전행정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4.01 ~12.31	'아버지의 역할의 재발견'교육	40,000
2015년	행정자치부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4,01 ~12,31	다양한 계층의 전 지역의 아버지에게 교육 확대 보급	30,000
2016년	교육부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개선사업	4.1. ~11.30	본인과 자녀의 '행복한 성공'을 위한 비인지능력의 측정과 훈련(GRIT)	7,000
_	행정자치부. 경찰청	'아빠제다이' 우리동네 안전 프로젝트	4.1. ~11.30	자율방범대 대상 부성회복 교육 및 안전한 동네만들기	50,000

감사합니다!

www.fathers.or.kr

02) 415-7955 / fathersorkr@naver.com







발제 3. 부모교육요구도 선행연구 종합분석

3. 부모교육 요구도 (선행연구)

자녀의 발달단계, 자녀/부모의 특성, 기 관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심으로 부모교육 에 대한 요구도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





3. 부모교육 요구도 (선행연구 - 자녀발달단계별)

~	2008	영아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영 아 기	2001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 방법에 관한 0-1세 영아 부모의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0), pp75-90
71	2002	영아기 부모교육 내용선정을 위한 요구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28, 225-243
걸음마기	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 그 실태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0(3). 127-143
유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층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	열린부모교육연구, 5(2), pp 35-48
아	2011	유아의 인성 신장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요구조사	어린이미디어 연구, 10(3), 183-204.
기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한국아동학회지, 21(2), pp17-31
청소년기	2008	청소년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도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자료집, pp152-153
	2006	청소년기 가족의 여가생활을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요구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4(11), pp 92-106

3. 부모교육 요구도 (선행연구 - 자녀의 특성별)

2010	초등학교 자폐성 장애아동 부모의 부모교육 요구 내용에 대한 연구	정서 · 행동장애연구, 26(1), 227-246
2009	저시력 학생 부모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조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0(4), pp 33~57
1999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부모의 요구조사	한국초등특수교육학회 초등특수교육연구 창간호, 1(1), pp 141~161.
2004	부모교육 운영에 관한 초등 영재아 부모의 요구 분석	문화콘텐츠연구, 9, pp 99-122





3. 부모교육 요구도 (선행연구 - 부모특성별)

2015	한부모 가족 부모의 부모교육 현황 및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여성연구논총, 17, 99-127.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71-190
2011	대전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요구도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242-243
2011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한국교육, 38(1), pp 55-81

3. 부모교육 요구도 (선행연구 - 기관별)

1992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대한가정학회지, 30(1), 267-
1,556	관한 연구	282
2005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200	원장, 교사, 부, 모를 중심으로	505-519
2010	가정보육시설의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경상남도 M시를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2010년 정기 학술대회발표자료집, 372
2016	가정어린이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요구 및 활성화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pp 29-53
2013	유치원 낮잠 일과 및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의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2, 185- 206





3. 부모교육 요구도 (종합)

자녀발달단계, 부모/자녀의 특성 등에 따라 차이 나는 요구를 반영 → 맞춤형의 부모교육 설계 및 수행

발제 4. FGI 분석 결과





4. FGI - 부모교육 내용, 대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대상자

초등교사

중등교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담당자 1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담당자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 담당자

결혼이민자여성 1

결혼이민자여성 2

2016년 8월 중 조사

4.FG 분석결과 요약

참여율 저조 해결 방안

부모교육은 많고 내용 도 좋으나 참여율은 전 반적으로 저조. 참여율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

제도적교 육과정에 서의 활성 화

부모교육은 빠를 수 록 좋음. 부모가 되기 전부터 부모교육 필 요. 어린이집-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편 입, 활성화 필요

맞춤형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내용, 운영방안 필요

생애주기 의 균형성

영유아기/아동기에 집중되는 경향. 청소 년기, 청년기, 성인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

아버지교육 활성화

아버지교육이 많아 지고는 있으나, 여 전히 많은 비중의 부모교육은 어머니 대상 → 아버지로 대상 확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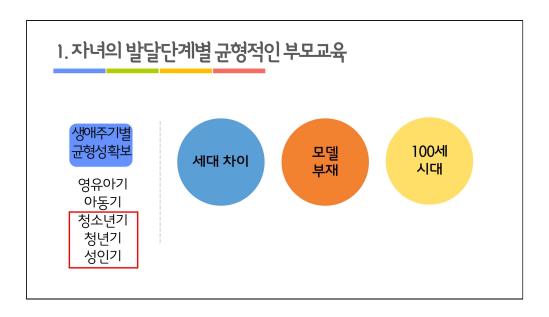
Ⅲ. 결론 및 제언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접근성/ 남성 생애주기별 제도화 부모 효율성 참여 균형성확보 연대 강화 영유아기 시간,장소제한없이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버지교육 건강한 시민단체 아동기 원하는 대상이 전문강사 활성화 부모운동 청소년기 부모교육을 수월하게 전달체계 청년기 받을수있는방안 정책 성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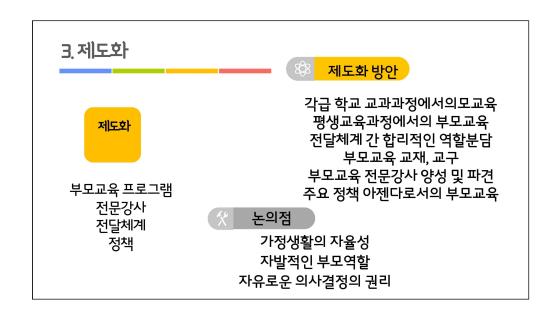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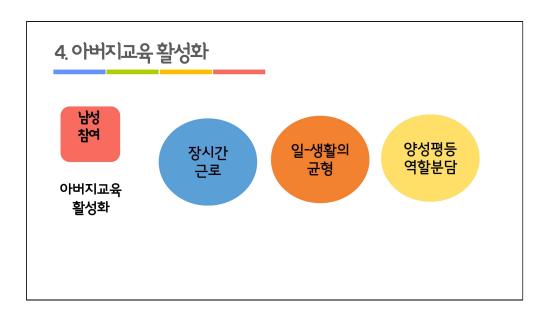


그 부모교육의 접근성과 효율성 강화 접근성 매체, 방법 효율성 부모, 자녀, 찾아가는 강화 의 다양화 가족의 특 교육 온라인 성고려 시간,장소제한 오프라인 없이 원하는 대상이 부모교육을 수월 하게받을수있 는방안





















발제 2

세계의 부모교육과 한국에의 전망: 부모교육에서 가족문화교육으로

정 미 리 / 가족연구소'파밀리엔바움'소장

I. 서론

오늘날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정 생활의 양식은 인간 삶의 가장 본질적인 양상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미 현실화된 경험들은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되기까지 심오하게 재고되어야 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가장 의미 있는 시도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구 북반구의 국가들에 의한 것들이었고, 그 시도들이 빈곤한 문화권으 로 그대로 이식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부모교육 및 가족교육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성인들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문 영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대부분의 초기프로그램들은 신생이민국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이었다. 반면에 늙은 대륙인 유럽에서 행해지는 것들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나라에서는 전통이 깊고 보수적인 특성을지닌 선진국에서 어떻게 부모교육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이 자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발표자는 우리보다 앞서서 부모교육을 실천한 선진국들에 대한 조사





를 위하여 불어권 국가, 독일어권 국가, 영어권 국가들에 대하여 자료수 집 및 현장방문을 하였다.

Ⅱ. 선진국 부모교육의 역사 및 현황

1. 불어권 국가들에서의 부모교육

1-1) 부모학교(Les Ecoles des Parents)의 출현과 그 관점

1904년, 마담 몰-바이스(Mme Moll-Weiss)가 "어머니 학교(Ecole des Mères)"를 보르도에서 파리로 이전시켰는데, 이 학교는 이미 1897년부터 소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 학교의 프로그램은 육아법, 아동심리 등이었고, 대학교수들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랑스에서 부모교육은 매우 열성적인 에너지들에 의해서 다소 산만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가족협회, 가족의 집, 가정공동체, 청년문화의 집, 모자보호서비스, 가사학교, 종교적 집단, 결혼준비센터, 민중대학,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이 바로 그 산만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당연히 1928년에 마담 베린느가 "부모학교(L'Ecoles des Parents)"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여 오늘날 "부모와 교사들의 학교 (L'Ecoles des Parents et des Educateurs : EPE)"라고 불리는 기관이다.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 "부모학교"라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처럼 이 시기는 프랑스에서 급격한 교육적 변화의 시기로 특징 지워진다. 마담 베린느의 내면에서는 두 가지수준의 사고와 행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 전통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연구에 기반이 되는 인문과학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중시하는 "능동적 학파(Ecole active)"에서 주도하는 "새교육(Education nouvelle)"이었다.

이 "새교육"에의 구상은 아동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과 함께 발전되었고, 마담 베린느는 베르티에와 함께 "교육"이라는 잡지의 발행에 참여함으로써, "새교육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었다.





서유럽 부모교육 운동의 탄탄한 초석을 마련한 마담 베린느의 시도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예전의 부권의 원칙과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자율성 의 관념 사이에서 화해의 노력을 표현했고,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도덕교 육을 시키는 전통적인 방법과 인본주의적 교육을 시키는 능동적인 방법들 사이에서의 화합을 표현했다(A. Isambert, 1968).

부모학교는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관에 얽매어 있었지만, 새로운 조류인심리학적 토대의 교육연수에 열정적이었고 정신분석학에는 저항적이었으며,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들의 지지를 재빨리 얻어서 지식인층과 대학교수들에게 접근했다.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들이 마담 베린느와 함께 일하게 되었고, 1928년부터 1939년까지 해마다 새로운 주제(예를 들면, 1931년의 주제는 "인성")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였다. 파리사회박물관에서의 정기적인 강연, 뚤루즈(Toulouse)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와 같은 지역 대학에서의 강연 등 프랑스 전역에 걸쳐서 강연이 개최되고,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학습 동아리, 라디오 좌담 프로, 특수 도서관 운영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들이 전개되었으며, 1939년에는 가정교육 전문가 양성이 가족수당처(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모학교의 지부들이 뚤롱(Toulon), 마르세이유(Marseille), 니스(Nice), 릴(Lille), 당시(Nancy), 리옹(Lyon)에생겼다. 1942년에는 파리의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위생, 가정관리, 육아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최초로 공적인 지원금을 확보했다.

이러한 부모교육 운동은 1948년에 외이에르(Heuyer) 교수와 앙드레이정베르(André Isambert)의 노력 덕분에 많은 부처들(교육부, 보건부, 국민부, 사회복지기구, 가족수당처 등)의 지지와 더불어 두 번째 도약의단계에 들어섰다. 장학사, 교수, 교사, 가족협회, 학부모회 등 여러 그룹들의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었고, 부모학교는 파리의 의과대학에서 개최되었던 강의 내용들을 부모학교의 강연들이라는 명칭의 간행물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부모학교의 활동이 매우 다양해져서 상담, 편지를 통한 조언, 토의그룹, 영화 상영과 토론, 라디오와 T.V.프로, 도서편집과 홍보물 제작, 청소년서클뿐만 아니라 결혼준비교육, 부모그룹, 사회복지사그룹의 지도자들을 위한 특별연수 등이 생겨났다.

계속해서 여러 지부들이 프랑스의 각 도시와 외국에 탄생했고, '연구 단체'에 의해서 연결되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함





께 만날 기회가 생겼다. 어떤 이들은 건강, 위생, 육아 부문에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행동과 정보를 강조했고, 다른 이들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다. 도덕적 가치관을 토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심취한 사람들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그 아동의 가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까지 감행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보수적인 경향의 프랑스에서는, 아동중심의 시각에서 주어지는 조언들을 부모가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권위나 훈육 등의 주제가 지배적이었으며, 아동기의 신경증과 학업부진(특히 남아의 경우) 등도 다루어졌으나유아를 위한 조언은 드물었다. 즉,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어려움이 표현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장기 동안 스스로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부모의 기능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망설임이나 부끄러운 감정 때문에 표현을 주저했고, 사생활에 외부의 권위가 끼어든다는 반감마저 있었다. 더욱이 부모학교는 중류계층과 지식층의 사업이었고, 실제로 필요성을 가장 심각하게 느꼈을 중하류계층에서는 부수적으로만 영향을 받았을 뿐이었다.

개혁에의 의지를 가졌던 부모학교의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들은 해마다 관점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다음의 세 단계로 보여준다.

- ① 초기에는 아동 그 자체, 아동발달, 아동의 문제들을 다루어서, 부모들에게 아동들의 각기 다른 발달단계에 맞추는 양육태도를 갖도록, 그리고 아동의 비정상적 발달 여부를 잘 살펴보도록 하였다.
- ② 1953년에는 부모심리가 도입되어서, 부모들에게는 각자의 역할 내면에 정서적 요구, 보상심리, 죄의식, 자신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영향 등이 있고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스스로에게도 향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 ③ 1954년에는 부모-자녀관계와 가족그룹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동심리학이나 부모심리학처럼 순수하게 개인적인 심리학에서 사회심리학의 관점으로 도약을 한 셈인데, 이 시기가 바로 미국의 사회심리학이 유럽으로 강력하게 밀려들어오던 시기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소르본느(Sorbonne) 대학 교육학과 교수진에 의해 집중적인 교육연수 사이클이 구성되었고, 서로 상반된 심리학적 접근





들이 독단적 주장 없이 포함될 수 있었다.

1960년에 출판된 <u>부모교육(L'éducation des parents</u>)에서 이정베르(A. Isambert)는 북아메리카에서 온 생각들에 매우 주목하며 30년간의 경험을 종합했다. 1937년에 <u>새 노트(Nouveaux Cahiers</u>)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1941년에 리옹에 심리학연구소를 지휘했었던 그는 부모교육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그 개념정의에 따라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했다.

- ① 정보로서의 부모교육 : 이 관점에서는 충고나 처방을 주는 것이 관건 이 아니고, 아동기에 직면하여 보다 적합하고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주어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보다 명백하게 보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 ② 대인 행동으로서의 부모교육: 이 관점에서는 지식이나 방법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좀 더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덜 휘둘리도록, 그리고 헌신적 사랑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적 방법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 ③ 사회적 관계 관련 활동으로서의 부모교육 : 이 관점에서는 인간을 좀더 능동적인 사회적 교류,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수용, 좀 더 유연하고 적합한 관계 수립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돕는 것이 관건이다.

1-2) 실제적인 활동들

부모학교의 활동들은 매우 다양하여 세 개의 범주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①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에 관련된 지식들의 심화가. 강의와 강연

부모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강의나 강연들이 여러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특히 2차 대전 후에 파리의 부모학교는 의과대학 내에 부모교육 강좌를 개설하였고, 1950년의 한 강좌는 400명 정도가 수강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강의나 강연이 주는 신선함은 사라져갔고, 특히 TV의 확산과 1960년





에 정기적인 라디오 강의로 인해 강의나 강연의 청중 숫자는 줄어들었으나, 그 대신에 새로운 스타일의 참여방식이 채택되었다. 토론 그룹과 활성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나. 출판 활동

나-1) 부모교육용 월간잡지 부모학교(L'Ecole des Parents)

부모학교는 1948년에 파리의 의과대학에서 개최되었던 강의내용들을 출판하면서부터 <u>부모학교의 강연들</u>이라는 명칭의 간행물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1953년부터는 <u>부모학교</u>로 개칭하여 강의내용 이외에도 연구, 설문조사, 연대기, 새소식, 편지 등의 여러 종류의 기사를 실었다.

1950년대에는 라디오 방송국의 승인 하에 일요일과 수요일에 방송되던 부모교육 관련 좌담 프로를 잡지에 연재했다.

제롬(Gérome, 1974)의 조사 결과, 이 잡지가 실제적인 교육적 측면에 기여하는 정도를 볼 때, 응답자 중 76%가 긍정적 영향을 인정했다.

나-2) 부모교육 및 가정교육에 관한 학술잡지 <u>가족그룹(Le Groupe</u> Familial)

1956년에 프랑스 부모학교 대표자 회의에서 "부모서클과 부모학교들의 연합 보고서"를 3개월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일이 결정되었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가족사회학분야의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입수하기 위해서였다. 이 보고서는 1958년부터 <u>가족그룹</u>으로 그 명칭을 정하였고, 이전에는 <u>부모학교</u>에 실렸었던의과대학의 부모교육 강좌들이 1963년부터는 <u>가족그룹</u>에 실리기 시작했다.

<u>가족그룹은 부모학교</u>의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행하는 여러 활동들에 관하여 정보를 주었고, 차츰 지도자 양성과정 연수를 받는 사람들의 자료가 되었다. 매 호에는 한 테마가 정해지고, 이 테마는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역사학, 교육학, 민속학 등 여러 각도의 접근 방법들에 의해 심화되고, 그 테마에 관련된 참고문헌 리스트가 주어진다.

나-3) 부모교육용 서적들과 브로셔

현재 많이 논의되는 주제들에 관해 많은 저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 "부모학교/시로스(Syros)" 전집, 13권
- "부모학교/카스테르만(Casterman)" 전집, 11권
- FNEPE(부모학교 프랑스 연맹) 연구 전집, 13권.





그 이외에도 FNEPE는 "벨기에 가족 연맹"이 발송하는 브로셔를 매달 부모들에게 보내준다. 이 방법은 독일의 <u>부모편지(Elternbriefe</u>)와 비슷한 것으로 <u>탄생에서 3세까지의 당신 아기들의 일기</u>와 <u>복잡한 아동기:7, 8세</u>의 두 가지가 있다.

출판활동은 프랑스 부모학교들의 명성을 증명하고, 또 현재 가장 활발 한 사업이기도 하며, 프랑스 내에서 공적인 연구에 의한 개척자적인 작업 을 수행하고 있다.

다. 시청각 프로그램

다-1) 라디오 프로그램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R.T.F.)은 195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문화의시간"이라는 프로에 일주일에 두 번씩 부모학교에게 시간을 배정해주었다. 실제적인 교육과 가정생활에 관한 주제로 10분 동안 좌담회를 갖는이 프로는 청취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그들의 편지를 많이 받았다. 1954년에는 R.T.F.에서 6개월 동안 부모-자녀관계에 대하여 부모나 청소년들을 위한 라디오상담 프로그램이 매주 방송되었는데, 청취자들은 단순한 좌담회 형식에 비해서 이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그들의 편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한 강의가 연속 방송되었는데,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프랑스-문화(France-Culture) 채널과 파리 IV(Paris IV)에서 1963년부터 방송했던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는 테마였다. 매 회 마다 주제에 맞는 전문가들이 질문에 응답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월간잡지 <u>부</u>모학교에 실렸다.

다-2) TV 프로그램

부모학교는 1958년부터 미래지향적 교육방식으로 TV의 활용을 시험해보기 시작했다. D.P.T.F.(프랑스 TV 프로그램 위원회)는 1959년에 부모학교가 기획한 부모-청소년자녀 관계에 대한 몇 개 시리즈의 방영을 허락했고, 소르본느 대학 교육학과 교수진이 제공했던 부모학교의 강좌 6개도 1963-1964년에 TV에 방영되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의해 급격히 변해가고 있을 때에 TV를 매체로 부모교육이 가정 내부로 침투한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다-3) 영화





1951년부터 부모학교는 영화제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58년에 르 샤누와(J.P. Le Chanois)에 의한 단편 영화 "거짓말"이 제작되었다. 제작 시에 심리학자들이 동참했고, 그 영화는 주로 부모들의모임을 확산시키기 위한 동기부여의 매체로서 활용되었다.

부모학교는 1963-1964년에 19개의 영화를 활용했고,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 그 제작과정 자체가 하나의 교육적 기법이었다. 주제선정에 관한토론, 등장인물들의 성격, 대화의 구성, 배우들의 선정과 감독 등 이 모든 것은 활발한 교육작업이며, 특수한 경우에 대한 토론과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들을 유도해낸다. 부모학교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청년들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험을 해보게 하였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영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고려하였고, 이런 과정으로 1965년에 2개, 1966년에 3개가 제작되었다. 이 무성영화들은 청년들의 모임에 널리 활용되었다.

②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프랑스의 부모학교에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초기에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도움을 받았으나, 1956년, 세브르(Sèvre) 교육연구센터의 전국회의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부모들에게 가족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지식들을 알려주고자 초기부터 노력했던 부모학교는 가족심리학과 그룹 활성화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1958년에 부모학교 지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부 별 발표, 그룹 작업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첫 번째 연수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가족그룹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조화
- 가족의 어려움, 부모의 표현방식과 그 해석
- 가족그룹의 각 구성원들의 역할
- 그룹작업
- 그룹의 운영방식들은 어느 수준으로 부모그룹에 적용될 수 있나?
- 부모그룹의 관찰
- 부모그룹의 지도
- 부모학교의 방법들과 그 적용.





시간과 더불어 지도자 양성과정은 체계화되어서 세 개의 유형이 생겼다.

- A: 가족심리교육학의 연수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 B: 좀 더 숙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 C: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오는 사람들.

기본적 연수 이외에도 그룹의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나 실험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고, 1963년에는 지도자 양성과 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1회의 연수는 3일간 지속되고, 7회의 연수를 받으면 하나의 과정을 끝마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의 종류는 4개가 있다.

- 가족심리학과 교육심리사회학에 관한 정보 연수들 : 이를 통해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받는 사람 상호간의 여러 역할과 태도를 익힘
- 참가자들의 태도를 연구하는 그룹 역동성 연수들
- 특별 대담과 모임의 활성화 문제를 심층화한 특별 연수들
- 연수생들의 실질적인 자질을 관찰하고 발달시키는 최종 연수.

이 연수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방법의 연구, 평가, 연수강사와 실무자들의 교육 등 내부적 주요 작업이 진행되었다. 15명으로 구성된 연수팀이 항상 준비작업을 하였고, 1964-1965년에는 4개의 팀이 동시에 작업을 하였다. 파리에만 있던 연수원도 그 지부가 몇 개의 도시에 생겨서탈중심화로 인한 장점이 많아졌다.

부모학교에서는 이 연수들이 방법을 전수해주는 간단한 교육 정도로 여겨지지 않고,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교육자로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집단연구로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인 것(활동을 조직 및 운영하는 방법, 부모들과 접촉하는 방법, 몇몇 기법들을 활용하는 방법,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 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 사회 적응, 반응과 관계의 능력, 동기부여 등과 관련된 내적인 것까지 포함하려 노력하였다. 각 연수는 부모학교에서의 사례 토론에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심리학이나 부모-교사 관계에 관한 강의를 포함하고 있고, 3분의 2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정신분석학이나 그룹역동 이론의 영향을 받은 초기의 기법들은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의 태도나 동기의 분석을 심도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각자 자신의 상황을 자기 방식으로 발표할 때, 다른 참가자들은 자





유롭게 반응하며, 진행자의 역할은 이해와 수용의 태도로 이 표현들을 쉽게 해주는 것이었다. 심리극도 이러한 토론에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연수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부모들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예방 분야의 강사, 의사, 교사, 심리학자, 법률가, 상담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발전과 수요의 증가 덕분에 오늘날 부모학교는 프랑스 내에서 가장 큰 연수기관들 중 하나를 보유하게 되었다.

③ 다양한 형태로 부모 원조

가. 상담

1949년부터 부모학교는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간잡지 <u>부모학교</u>에 한두 건씩 답장을 싣기도 하였고, 그 중에 직접적 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 발송인을 기관에 오게 하였다. 1960년 대 초반까지 해마다 200~250명이 상담을 받았으나 무료상담이었던 까닭 에 모든 부모들이 다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는 없었다. 상담 장소는 부모학교였고,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보내졌으며, 심리교육센 터, 직업 오리엔테이션 센터, 국민사회위생 사무국 등 몇몇 관계기관과 협력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1963년에는 이 상담 프로그램에 부부상담 도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참여숫자가 급증하였고(1973: 806사례, 1974: 911사례, 1975: 1123사례), 문제도 매우 다양해졌으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들 스스로 문제를 상담하려고 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두 개의 새로운 상담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는데, 학교 오리 엔테이션 상담과 피임이나 낙태 등에 관한 상담이었다. 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관한 상담이었다. 이 피임이나 낙태 등에 관한 상담은 D.A.S.S.(위생행동과 사회행동 지도)라는 기관에 의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피상담자들은 서류작성비로 15프랑만 지불했다.

1968년부터는 가족 전체가 함께 오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은 1975년에 "체계적(systémique) 팀"을 탄생시켰다. 의사, 심리학자, 법률가, 부부상담가, 오리엔테이션 상담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 십여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각자 일 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의 상담을 담당하는 제도였다. 이렇게 개인 상담에서 가족 상담으로 바뀌어가는





사이에, 유럽에도 "가족치료"라는 학문 영역이 상륙했다.

나. 전화상담(Inter-Service-Parents) 및 인터넷 상담

부모학교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1960년대까지는 부모들의 요구에 충분히 답변하고 있는 편이었으나,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좀 더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서, 전화의 활용을 생각해냈다.

1974년에 파리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최대한 객관적인 교육적 특성의 정보를 주는 것으로서, 부부상담가, 학업 및 직업문제 전문가, 휴가와 여가문제 전문가, 법률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전화에 응답한다. 익명으로, 그리고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나서 다른도시의 부모학교들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 상담을 통한 요구의 특성은 '학업 및 직업 오리엔테이션', '법률문 제들', '여가와 휴가', '각종 사회정보(탁아, 숙박, 사회보장 등)', '심리 및 가족관계'의 다섯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정미리(Jeong, 1988)가 파리의 부모학교에서 1987년 한 해 동안 응답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학업 및 직업 오리엔테이션'(30.56%)과 '법률문제들'(30.25%)이 가장 많았고, '각종 사회정보'(7.14%)가 가장 적었다. 월별로 그 분포도를 보았을 때에는 여름방학 직전과 직후에 '학업 및 직업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질문이 월등히 많았고, 7월과 8월의 여름방학 동안은 모든 문의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들은 월간잡지 <u>부모학교</u> 매월 호의 편집에 최대한 반영되고 있다.

첫 번째 전화상담 프로그램인 Inter-Service-Parents 외에도 유아상담 인 Bébé-Conseil, 한부모들을 위한 Allo-Parents-Seuls, 청년들을 위한 ISP-Jeunes 등이 더 생겼으며, 1995년부터는 FSJ(Fil Santé Jeunes) 서 비스가 12세~25세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익명과 무료로, 전화 및 인터넷 을 통하여 개설되어 파리의 부모학교인 "일 드 프랑스 부모학교(EPE Ile-de-France)"에서는 매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다. 부모카페 및 부모학교 카페

일반적인 카페처럼 구성된 공간에서 부모들이 편안하게 서로 만나서 자 녀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정한 시간에 개인적인 상담을 받을 수 도 있으며,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놀이방을 갖추었다.





1-3) 확산과 연계

초기에는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의 불어권에서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진 협회들을 모이게 하는 연구모임의 활동이 매우 미약하여, 이들을 연결 시켜주는 제도가 필요하였다.

1964년, 부모교육 국제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pour l'Education des Parents: F.I.E.P.)의 탄생은 국제적인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 부모교육 종사자들의 정보교환과 상부상조를 위한 기회를 만든다.
- 부모교육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공동으로 한다.
- 국제회의나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 린다.
-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다.

프랑스 자체를 위한 계획으로는 1974년에 부모와 교사학교 프랑스 연맹(Fédération Nationale des Ecoles des Parents et des Educateurs: F.N.E.P.E.)이 다음의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

- 프랑스 내에서 부모학교의 창립이나 발달을 돕는다.
- 각 가입 단체들의 활동방법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새로운 방안을 창조 함으로써 가입멤버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 연구를 하거나 연구 활동을 격려한다.
- 공공기관이나 대중에게 부모학교의 활동을 홍보한다.
- 부모학교들이나 F.N.E.P.E.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모금한다.
- 부모나 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종 단체 주변에 새로운 작업그룹 및 토론그룹을 조성하여 그들의 활동을 돕는다.

F.N.E.P.E.의 활동은 주로 회의와 만남의 주최, 여러 종류의 출판물 간행, 교육연수 등을 들 수 있고, F.N.E.P.E.에 가입하는 부모학교들은 정치적, 종교적 특성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부모학교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갖추고, 때로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소액의 경비로도 운영이 가능한 반면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중지할 때에는 부모학교 역시 폐쇄될 위험이 크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부모학교들 중 20여개의 부모학교들은 종일제나 시간제로 보수를 받는 실무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14개의 부모학교들은 뇌비르뜨법(la loi Neuwirth: 피임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법)에 의거하여 "정보, 교육적 충고, 가족 및 부부상담 등의 기관"이라는 규약을 갖고 있었으며, 각 학교는 400시간 이상의 교육연수를 받은 자격증 소지자를 최소한 한 명은확보해야 했다(Jeong, 1993).

프랑스의 부모학교들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게 이식되었다.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매우 간략한 구조를 갖추기도 하고, 평생교육법의 범주 안에서 활동하기도 하며,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한다. 혹은 경쟁시장에서의 "교육연수 백화점"처럼 될 위험도 있다. 어떤 부모학교는 독특한 프로그램(예: 학업부진의 분석과 치료 서비스)을 진행하기도 하고, 공적 지원금은 부모학교들을 다른 관련행정부서의 고삐가 되게 하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많은 연구기관들과 활동 기구들이 부모학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4) 벨기에 몽스(Mons)의 CERIS

벨기에에서는 전형적인 형태의 부모학교와 더불어 뿌흐뚜와(J.-P. Pourtois) 교수가 지휘하는 몽스(Mons) 대학 부설 "가족과 학업 관련 사회교육학 연구 및 혁신 연구소(Centre de Recherche et d'Innovation en Sociopédagogie Familiale et Scolaire : CERIS)"의 활동을 보아야할 것이다. 뿌흐뚜와 교수는 자신의 저서 <u>부모교육 혹은 교육에의 경쟁자극(Eduquer les parents ou comment stimuler la compétence en éducation</u>(1984)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명성을 얻었다.

그는 하류계층을 겨냥하는 북아메리카의 개입 프로그램의 방법과 목적에 영향을 받았다. 교사와 부모들은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 요구되었고, 학교-가정의 관계는 연구 및 활동의 목표이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연구 목표이다.

빈곤이 가족 내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검과 탈주변화 전략이 강조된다. 캐나다의 퀘벡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 하에 대규모적으로 이 계획 이 진행된다.





2. 독일어권 국가들에서의 부모교육

2-1)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출현을 가져온 사회적 배경

독일어권에서는 이미 중세 말부터 부모들을 잘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시도가 있었다. 1473년부터 메트링거(A.B. Metlinger)는 '유아들의 지도'를 출판했고, 1628년 코메니우스 (Comenius)의 '어머니학교'(Mutterschule)가 등장하였으며, 1796년에 잘 쯔만(Salzmann)은 '콘라드 키퍼'(Konrad Kiefer)에서 룻소(Rousseau)의 '에밀'(Emile)을 모방하여 가부장적인 농가에서 농부의 아들이 양육되는 방식을 묘사하였다.

룻소의 영향은 페스탈로찌(Pestalozzi)의 작품,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Lienhard und Gertrud)에 결정적으로 나타났다.

프뢰벨(Fröbel)은 가족들을 교육시켜야만 아동교육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경험과 더불어 보모나 유치원 교사 교육의 중요성뿐만 아니라부모들의 부모역할 준비의 중요성을 느껴서 '유치원'(Kindergarten)이라는 개념을 아동들을 위한 학교로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교육과 원조의 장소로서 수태하였다. 프뢰벨 이전의 교육자들은 가족교육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는 책을 쓰는 일밖에 할수 없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았던 그 시기에 교육의 대상은 국소수에 불과했었으나, 프뢰벨의 등장으로 인하여 가족들은 직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실습교육을 인도해주는 프뢰벨의 대표적인 저서 '엄마노래와 애무의 노래'(Mutter- und Koselieder)에는 엄마들이 손가락 놀이를 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삽화, 멜로디, 가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부모교육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호소하기 시작했던 독일사회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프라이어(Preyer)의 저서 <u>아동의 영혼(Die Seeles des Kindes</u>, 1882)의 영향을 받은 아동심리학회의 창설과 더불어, 니이체(Nietzsche), 나토르프(Natorp), 딜타이(Dilthey)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인간"의 형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흥분하고 있었다 (Jeong, 1993, 243).

독일에서는 이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네 종류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





다. 그것은 괴에테, 쉴러, 훔볼트(von Humboldt), 낭만주의자들 등 과거독일의 위대한 저자들에 관한 연구, 자연과 시골로의 복귀, 창조적 활동에 최대한 근접하는 광범위한 예술활동, 민중들이 가진 '독일 정신'의 탐색의 네 개의 길이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적 분위기를 재구성하기 위해, 혹은 아동들을 가정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시골에서의 기숙사들이 늘어갔다.

뿐만 아니라,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출현을 가속시킨 좀 더 대중적인 차원의 중대한 이념적·사회적 운동이 있었는데, 그 4가지 운동은 20세기 전반부의 독일의 모습에 큰 흔적을 남겼다.

19세기에 탄생한 독일의 **노동자 운동**은 중세 길드의 붕괴와 산업화 과정에서 점점 악화되는 노동자들의 조건으로부터 생겨난 운동으로서, 노동자 단체들은 교육, 스포츠, 종교, 문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일반적인 어머니교육과 부모교육에 관한 주도적인계획은 바로 이러한 운동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독일의 여성운동은 1865년에 '전독일 여성동맹'(Allgemeine Deutsche Frauenverein)이 탄생함으로써 시작되었고, 1933년에 나찌가 집권할 당시에 77개 여성단체가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모임들의 활동은 주로 여성이 고등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특수 기관의 창설,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방어, 그리고 법적 평등, 특히 선거권을 위한 정치적 투쟁 등이었다.

청년운동은 19세기의 사회적 혼란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철새'(Wandervogel)라는 청년 도보여행 장려회를 통하여 자연, 신체, 노력의 묘미, 공동의 삶, 건전한 삶, 우정의 재발견을 성차에 관계없이 하려는 거대한 운동이었다. 청년운동의 성과는 매우 복합적이고 긍정적이었다. 인성은 한 집단에의 소속감 없이는 발달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룹 구성원들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위한 과업을 맡은 젊은 지도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으며, 이 운동의 결과로 수많은 교육자로서의 소명이 밝혀졌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1871년부터 강연, 음악회, 연극 등을 개최하는 '민 중교육의 확산을 위한 단체'(Gesellschaft für Verbreitung von Volksbildung)가 존재해왔다. 1차 대전 후에 에르드베르크(Robert von Erdberg)의 주창으로 **민중교육운동**은 가속화되었는데, 단편적인 지식들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속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국가 공동체의 출현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32년에는 200개의 민중대학이 있었고, 1929년, 경제 대공황의 시기에 이미 실직의 문제와 재교육의 문제에 답하기 시작했다.

독일에서의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시기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독일인들의 노력이 다방면에서 보이는 풍요로운 시기였다. 결국 성인교육의 관점에서 시작된 초창기의 의도는 당연히 부모교육으로 연결되어 갔던 것이다.

가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좀 더 본격적인 시도들은 19세기 말부터 있었다. 타우베(Taube)는 라이프찌히(Leipzig)에 엄마들과 보모들에게 아기돌보기를 가르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였고, 1906년에는 베를린(Berlin)에 아동연구와 교육상담을 위한 '퓨어스텐하임 진료소'(Poliklinik Fürstenheim)가 생겼다. 그 진료소의 과업은 교육적 어려움이나 아동의 비정상적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거나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었고, 그 과업은 진가를 인정받아 다른 많은 기관들의 설립을 촉진시켜서, 1907년에는 이런 류의 기관이 75개가 되었고, 1910년에는 약200개의 공적 기관과 준공적 기관들이 생겼다. 이런 류의 기관들에는 유치원, 육아법 상담소, 교육상담소, 학습심리상담소, 결혼상담소, 청소년 사무소 들이 포함되었다(Jeong, 1988, 19-20).

두 번째 유형의 기관들은 특히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1917년에 탄생한 '어머니학교'(Mutterschule)로서, 오늘날 '가족교육기관' 이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들이다. 최초의 '어머니학교'는 1914-1918년의 전쟁 속에서, 즉 독일 사회가 그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에 태어났다.

즉, 독일의 가족문화교육은 '부모교육'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부모교육' 이라는 주제는 잘쯔만(Salzmann)에서 프뢰벨(Fröbel)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2-2) 어머니 학교(Mütterschule)와 나찌시대 전후

프뢰벨과 몬테소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루이제 람페르트(Luise Lampert, 1891-1862) 여사는 특히 노동자 계층의 빈번한 영아사망을 우려하여 임신, 출산, 육아, 유아교육 등의 문제로 여성들을 인도하려고





1916년에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립하였고, 그 1년 뒤인 1917년에 최초의 어머니 학교(Mütterschule)를 설립했을 때에는, 방 4개짜리 아파트를 4채 빌려서 민중교육운동의 '새방향'(Neue Richtung)파가 지향했던 것처럼, 소규모의 그룹을 지어서 활동하였다. 전시인 그 당시에 노동자 계층의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고, 행동모델이 없었으며, 수많은 군인 아내들은 지나친 걱정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어머니학교는 훌륭한 교육의 장소가 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유아교육 등의 문제를 교육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 목표였다. 도시의 어머니 학교들에는, 6개 종류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생리학, 의학, 위생, 식이요법, 모성심리 등의 프로그램이 실습과 함께 제공되었으며, 특히 유아 놀이와 유아 돌보기 등은 유치원에서 아동들을 직접 관찰하며 할 수 있어서 많은 흥미를 야기시켰다. 요리 수업, 가사 방법, 실직자들의 교육 뿐만 아니라 가족의 권리에 관한 강의도 제공되어서 시립학교의 여학생들이 실습하러 오기도 하였다.

람페르트는 '어머니 학교'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글과 강연을 통해서 일 반화시키기 시작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여러 도시와 심지어는 미국에 서도 슈투트가르트의 어머니 학교를 모델로 자신들의 기관을 설립하기 시 작했다. 이동수업(Wanderkurse)이 시골에 개최되고, 수많은 조합이나 종 교단체들이 어머니 교육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30년 대에는 프로그램의 방향이 학동기, 청소년기, 가정의학, 식이요법음식, 종교교육, 가정관리, 여성체조(특히 임산부를 위한) 등의 문제들로전환되기 시작했고, 여러 지역으로 그리고 시골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Hitler)가 권력을 잡고 나찌(Nationalsozialismus)당이 득세하면서, 사설단체들과 종교적 자선단체들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나찌는 교육(Schulung)을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독일여성과 독일 어머니의 의무'를 준비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았다. 교육을 통해서 정체감과 소속감을 유지해야 했고, 여성들의 정치적 교화와 새로운 가치관의 주입을 위하여는 지력보다는 감동과 정서를 더 부추기며, 영웅적 봉사에 적절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자극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갔다. 궁핍과 테러의 상황에 처해졌었던 전시동안, 이심화된 이념적 작업은 점점 더 사회적 작업이 되어갔다.

나찌시대에는, 일반적인 입문교육 위에 가사관리, 건강, 교육, 민속전통





의 4개 종류의 교육이 첨가되었다(Schiedeck, 1989, 12). 표면적으로 볼때 매우 실질적인 이 교육의 이면에는 사실상 여성들의 소비습관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 '어머니 학교'에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실질적 기능, 지지하고 의식화하며 사물들에 의미를 주기 위한 심리적 기능,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계층 속에 당의 이념을 뿌리내리려는 정치적 기능의 세 가지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Jeong, 1993, 289).

이러한 수업들은 주로 이동식 강의, 고정된 기관, 기숙사를 통한 세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Schiedeck, 20). 이동식 수업은 시골지역을 위한 강의로서 한 여성 지도자가 각 마을을 돌며 보름 정도의 강의를 개설하고, 모든 수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자료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서 육아시범을 보이거나, 요리, 재봉 등의 실습을 했고, 가정방문도병행했다. 고정된 '어머니 학교'는 도시에 세워졌고, 매우 막강한 인력을소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도 '노동 어머니 학교'(Werkmütterschule)라는 이름으로 침투했다. 기숙사는 기혼여성들을위한 '가정주부학교'(Heimmütterschulen)와 혼기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신부학교'(Bräuterschulen)의 두 종류가 있었다. 이 기숙사에서는 4주 내지 6주의 수업기간이 조직되었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수업기간동안 각 가정의 가사를 도와줄 파출부들을 대비하고 있었다.

'제국 학교'(Reichsschulen)는 각 지방의 다른 기관들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책임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었고, '어머니 교육기관'(Mütterschulungsstätten)과 '어머니 고등학교'(Mütteroberschulen)는 일종의 사범학교로서, 기관장들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Schymroch, 1989, 53).

이 기관들에서 통용되는 방법들의 기본 원칙은 항상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데올로기는 지적인 방식으로 전파되어서는 안되고, 여성의 삶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전파되어야 했다. 가정생활과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좀 더 광범위한 전체 속으로, 즉 국가의 포괄적인 삶 속으로 어떻게 포함되는가가 문제였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할 이념, 기술적인 설명, 실질적 연습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였다 (Erny, Jeong, 1996a, 102).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적 작업은 '독일 여성노





동'(Deutsche Frauenwerk)의 한 부서인 '제국 어머니봉사회'(Reichmütterdienst)라는 국가 부서 속으로 포함되어야 했다. 기관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자리잡았고, 1934년에 강의를 들은 여성들은 6만명이었고, 1936년에는 33만명이었다. 1941년에는 517개의 '어머니학교'가 있었고, 전쟁 중에도 그들의 작업은 진행되었다. SS 대원이 결혼하려면, 약혼녀가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가정집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거나 젊은 부부를 위한 복지기금 (Ehestandsdarlehren)을 받으려 해도 역시 이 교육을 받아야 했다. 부부복지기금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를 급격히 늘도록 고무했다(Jeong, 1993, 288).

나짜는 교육적 활동을 관례적 범주 내에서 하는지를 감시했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는 전체주의(Totalitarismus)는 논리적으로 어머니들이 관 심을 갖도록 이끌었고, 그녀들을 특권을 가진 협력자들로 만들려 했다.

2차대전 후에 '어머니 학교들'은 이념적 기구로서는 우선 와해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어머니 학교들'은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탄생하였다. 그렇지만 나찌 통치 하에서의 양적인 확장은 되찾지 못했다. 즉, 그것은 정치제도가 탄생시킨 것이 아니라 생존해서 남은 기구인 것이다. 히틀러 의 출현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많은 기관들이 새로이 합병되고, 오래 전부 터 이 일을 해오던 신교도 단체들과 구교도 단체들이 재조직되어 활동하 기 시작했다.

전후의 일반적인 관점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보다는 사회사업의 차원에서 긴급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었고, 치료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 시대의 한 보고서(Lück, 1956)는 "우리는 사람들이 자조(自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어머니 학교의 과업에 대하여 말하고, 어머니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가족적인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현대 사회의 고향이 없다는 느낌 (Heimatlosigkeit)과 매우 부족한 가정적인 일(Haüslichkeit)을 다시 조성하기 위하여 조력하였다.

어머니 학교의 작업은 재빨리 재구성되어서 주로 요리, 재봉, 육아에 치중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모든 영역, 즉, 어머니, 아내, 주부, 직업여성, 시민으로서의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했고, 이 모든 면을 포함 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의 통계적 자료를 보면, 참가자의 절반가량이 기혼여성들이고, 10-30%가 직업을 가졌으며(그 중 65%가 상업에 종사),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20-30세가 가장 많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준비를 위해 참석하였으며, 햇수가 거듭될수록 25-30세의 기혼여성의 참석률이 증가해갔다(Schymroch, 69). 그것은 그 기관의 역할이 발달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비'의 기능에서부터 '동반'(begleitende Bildungsarbeit)의 기능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에, 어머니학교에서의 교육은 점차로 확대되어갔고, 부부 문제와 가족문제, 각 발달단계에서의 아동보호와 교육, 가정에서 환자 돌 보기, 가정생활의 조직, 여가생활 조직,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 등의 새로운 제목의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결혼 준비 와 가사활동에 관련된 장기간의 합숙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었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어머니 학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고,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사회부에서 지급되었으나, 바덴-뷰르텐베르크 (Baden-Würtenberg) 주에서는 문화부에서 지급되었다. 그리고 어머니학교 뿐만 아니라 각 종파의 협회들, 복지단체, 여성단체, 시, 적십자, 자선단체, 조합, 심지어는 기업에서까지도 이 일에 강력하게 연루되어 지역이나 조직망에 따라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2-3) 가족교육기관으로의 변환

어머니학교들(Mütterschulen)이 대부분 그 이름을 가족교육기관 (Familienbildungsstätten)으로 바꾼 것은 대략 1965년과 1975년 사이의 일이었다. 여성의 이미지는 달라졌고, 되찾은 경제적 번영으로 인하여 생활조건은 나아졌으며, 교육의 대상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재구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60년대 후반 무렵부터는 가정 속에 '파트너쉽'을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센타에 교육 프로그램이 배치됨에 따라 교육학도 바뀌어갔다. 지식의 단순한 전수와 기술적 훈련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룹역동이론에서 얻어진 자료들에 근거한 그룹작업을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인지적으로 혹은 수공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를 연습하고, 자기 스스로 사회화의 과정에 따르는 것이 중요했다.





Dax(1978)와 Schaefer(1978)의 보고에 의하면, 60년대 말에 생겨난 "부모-자녀" 그룹들은 현대 핵가족에서 발생하는 복잡미묘한 요구에 응답하는 특권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 그룹들은 오늘날 가족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중 30-50%를 차지한다(AGEF, 1989a, 12).

보통, 일 주일에 한 번 어머니들(가끔 한 두 명의 아버지들 포함) 8-10 명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놀이감이 갖춰진 방에모인다. 6주에서 4세까지의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그룹이 나뉘어지며, 이그룹들은 아동들과 성인들에게 축소가족의 범위 내에서는 획득될 수 없는 사회적 학습의 경험을 하게 한다. 아동들은 그룹 속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며, 부모들은 교제, 경험교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는 놀이와 일을 알게된다. 이어서 부모들에게는 그들이 관찰하고 체험한 것을 토론하고, 공동활동 프로그램과 교육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모들끼리의 저녁모임이 제공된다.

이 만남들은 대부분, 10회에 이르는 코오스(Kurs)에 포함되고, 이 그룹들은 일반적으로 2-3년동안 연속적으로 접합되고 고정적으로 머무른다.

특수한 그룹들이 외국인 여성들, 장애아 부모들, 편부모들을 위해 생기기도 하고, 부모-자녀 공동체조, 수영, 노래 및 음악, 그림, 요리, 분장, 놀이 등 특별한 활동을 하는 그룹도 있다.

어머니교육(Mütterbildung)에서 가족교육(Familienbildung)으로 바뀌면서 남자들과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칭에 관한 토론도 거듭되었다. 그 결과, 인간발달에 중점을 둔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 자녀교육자로서의 부모교육(Elternbildung), 전통적인 독일 아동사회교육학(Sozialpädagogik)을 포함하고, 가정 전체에 중점을 둔 가족교육(Familienbildung)이라는 명칭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발전을 유도했던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사회 자체의 변모에서 생겨난 것이다. 가정의 겉모습이 변하고, 결혼제도가 바뀌고, 강력한 이념 운동이 남성·여성의 세계를 분절화시키는 방식 위에서 의견을 끌어내게 되었으며, 아동의 위치는 출생률의 격감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또한 평생교육 이념의 일반화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책과 함께, 가족교육기관들은 이러한 타이틀로 재정적인 확보를 하려면 새로운 규준에 적응해야 했다.

60년대의 작업은 주로 아동과 아동발달에 집중되어 있었고,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아동의 사회화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였으며, 70년대 말에는 관점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교육의 핵심이 아동에서 가족의 일상생활로 바뀌어갔는데, 특히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과업은 부모와 함께 일하거나,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복잡화되었다.

아버지들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들기, 수선, 전시 및 축제준비 등의 특별활동에만 참석하였고, 어머니들이 부모-자녀그룹에 오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에게 다른 아이와 함께 놀게 하기 위해(94%), 그리고 다른 부모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71%)"(AGEF, 1989a, 38)라고 대답을 하였다.

많은 기관들이 부모들의 요구에 다 응하지 못하여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였고, 그룹에 포함되는 아동들의 연령도 프로그램에 따라 점점 더 낮아져서 심지어는 6주의 유아들을 포함하는 그룹도 있었다. 한 예로서, "프라하 부모-자녀 프로그램"(Das Prager-Eltern-Kind-Programm : PEKiP)은 프라하의 심리학자인 코흐(Jaroslav Koch)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으로서, 유아의 감각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운동자극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루펠트(Ruppelt) 부부에 의해독일에 도입되어 1974년부터 실행되고 있다(BAG-Info, 1987).

하나의 PEKiP 그룹은 6-8명의 성인과 그 아기들로 구성되고, 일 주일에 한 번 모여서 90분동안 실습을 한다. 제 1코스는 8-10주 동안 계속되고, PEKiP이 끝나면 기거나 걷고자 하는 아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코스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1살 반 이상의 아기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모-자 코스로 옮겨간다(AGEF, 1982a, 1989b).

전반적으로 실습 위주의 경향을 띠었던 가족교육기관들은 그들 자신의 활동 근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숙고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사회과학이나 교육학 분야의 대학활동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었으며, 책임자들 대부분과 참가자들은 이론적 측면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론적 측면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에 더 치중하며, 몇 기관은 지부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장소 안에서 이동하는 조직을 갖기도 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노동자 복지'(Arbeiterwohlfahrt)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동 어머니학교'(Wandermütterschule)이다. 명칭은





아직도 어머니학교로 남아있고, 초기에는 가사방법이 주 내용이었으나, 차츰 가족문제들이 총괄적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 상으로 하게 되었다.

고정된 기관보다 덜 부담스럽고, 비용도 덜 드는 '이동 부모학교'의 설립은 특히 대도시에 위치한 가족교육기관들을 방문할 기회가 없는 시골사람들과 오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종종 '이동 부모학교'의 마을 방문은 차후에 그 마을의 상설 협회를 생기게 했다. 각 팀은 수업자료, 전시자료, 공구, 도서, 요리 및 봉재 도구 등을 각 장소로 운반할 수 있도록 2대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은 2명의 전문가와 현지 협회의 지원자들로 구성된다. 한 지역에서의 작업은 보통 2-3개월, 때로는 예외적으로 12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을 위한 도서와 놀잇감의 전시 및 시범은 각 촌락민들을 유인하는 훌륭한 조건으로 밝혀졌다.

1979년, 구서독에는 260개의 가족교육기관이 있었는데, 105개의 구교도 기관, 84개의 신교도 기관, 48개의 비 종파적 기관, 그리고 26개의 무소속 기관들이 있었다(Schymroch, 84).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무실, 부엌, 회의실, 아뜰리에, 체조실 등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다른 지역이나 시골에 지부를 갖기도 하였다.

2-4) 80년대 이후 통일 이전까지 구서독의 가족교육기관

70년대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경향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80년대 이후에는 여성과 가족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적으로 일부 기관은 사회복지기금이나 사회보장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한다. 가족교육기관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한 다음에 일자리를 찾기를 원할 경우, 그 여성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프로그램 제공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준비, 가정과 사회, 가정과 교육, 가정과 여가, 가정과 건강, 가정과 가사의 6개부문으로 구조화되었다(Schymroch, 97).

가정생활 준비 영역은 독일 가족문화교육의 실행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영역으로서 임신기 동안의 임산부의 삶, 임산부 자신의 자아개념, 아버지와 조부모의 역할, 예비부모교육, 예비조부모교육 등이 이 시기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영역에서의 프로그램들은 남녀 사이의 동반자





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예비부모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있어서, 강의 위주의 방법은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지겨워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러한 교과적인 방법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쳐서, 소위 '양육수업'이 새로이 탄생하게 되었다. "삶으로의 출발"이라는 명칭의 놀이를 통한 이 새로운 "양육수업"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내지 8명이 놀이판 주위에 앉는다. 차례차례 주사위를 던져서 각 숫자에 적합하게 장기말을 놓고, 검은 칸에 도달하면 상황카드를 집는다. 40장의 상황카드에는 유아를 키울 때에 일어날 수 있는특정한 양육상황이 짤막하게 묘사되어 질문이나 요구사항의 형태로 적혀있다. 카드가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행동하거나 태도를 정하고, 혹은 건너편, 왼쪽, 오른쪽 사람들에게 질문하며 대화를 해나간다. 전체적으로 놀이의 성격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은 의자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거나 동작을 하기도 한다.

이 방법적인 도구 덕분에 강사는 지나치게 수준 높은 학문적 요구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놀이의 중개를 통하여 부모들은 신생아 양육에 있어서 통례적으로 돌발하는 내용적 질문으로부터 구체화된다. 그리고 놀이의 실시로 인하여 양육에 관한 질문을 위한 흥미가 일깨워지고, 다른 참가자들과의 교환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예비부모들은 적어도 어떤 과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예상하게 된다. 즉, 자녀에 관하여 배우자와 함께 스스로의 양육방식과 삶의 방식을 발달시키는 것이다(BAG-Info, 1984).

가정과 사회 영역과 가정과 교육 영역은 가족삶의 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가족 간의 화합에 주력하며, 가족의 권리, 가족정책적 결정 및 가족일상 등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직업, 직업시장정책, 직업구조적 조망등이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거문화도 포함되며, 각 주기별 가족이 가진 문제들이나 특수상황에 처해진 가족들의 문제들을 그룹별로 다룬다.

가정과 여가 영역에서는 주로 창의적 일을 위한 재료와 매체, 단체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단체 속에서의 재료와 매체 혹은 다른 구성원들이 나 에게 제공하는 자극, 주말이나 휴가기간동안 여러 영역(공동요리, 식사, 놀이, 축제 등)에서 공동으로 준비하기 등과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가정과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유지 및 환자돌보기, 체중감량 및 균형체





조, 부모-자녀를 위한 놀이체조 등을 다루고, **가정과 가사** 영역에서는 주부들을 위한 세미나, 스스로 옷만들기 및 기타 재봉, 영양 및 조리 등을 다룬다.

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는 특정대상그룹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더나타나기 시작하여, 입양부모, 자녀교육에 혼자 직면해야 하는 아버지나어머니들, 암환자들, 실직 상태의 젊은 처녀들, 여성 그룹, 부모-자녀 그룹, 모자가정 그룹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고, 요구들이 점점 더복잡해져서 비형식적인 만남을 주선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리 조직화된것이 아니고, '만남의 장소'(Treff), '카페'(Café), '클럽'(Club) 등의 형태로 생겨났다(Schymroch, 97). 그리고 상담, 충고, 가정방문, 여가시간 조성, 외출, 주말, 자녀들의 숙제원조, 빵굽기 및 요리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참가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과정에 그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리하여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진전이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활동들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롭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가족교육기관들은 시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형태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80년대 이후의 AGEF자료들(1982b, 1984, 1987, 1988a, 1988b)은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요구의 대상이 되며, 책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분야들을 보여준다.

오늘날의 여성은 페미니스트 운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문제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 알토나(Hamburg Altona) 부모학교에서는 여성들이 좀 더 자율성을 찾도록 하는 일상적 작업(배관, 전기, 페인트 칠 등)의 학습을 포함한다.

가정관리에 남성들을 관련시키기 분야는 좀 더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위해 특별활동(체조, 만들기, 놀이), 부-자 주말,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예, 만들어진 공예품들의 박람회 출품과 전시 및 판매, 부-자그룹, 남성들의 힘든 삶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남성그룹 등의 프로그램들을 실험하고 있다.

신교도 가족교육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1964년에는 남성이 전체 참가자의 1.5%에 불과했지만, 1975년에는 4%, 1979년에는 6%, 1982년에는 9%, 그리고 1985년에는 9.8%로 아주 서서히 늘어갔다(AGEF, 1988b,





10). 남성들이 정형화된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현저하게 달라졌고, 이혼과 실직은 사회적 현상이 되었으며, 아버지들에게도 역시 이전에는 없었거나 표현될 수 없었던 요구가 느껴졌다.

외국인 가정을 수용하기 분야에서는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 주택, 교육, 여가, 안전, 건강 등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처음에는 수용이라는 것을 독일식의 규범과 가치관에 순수하고 단순하게 적응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상호간의 바람직한 이해의 토대 위에 평화적인 공존의 방식을 향해 인도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에서 점점 더 광범위한 문화교류의 시도가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실직기간을 활용하기, 환자 가족 돕기, 여자죄수 돕기, 지 체장애자의 고립 극복하기, 평화교육, 등의 분야가 있고, 환경문제의식을 갖게 하기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 을 주로 시도한다. 도시 한복판에서의 정원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그 리고 자연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고, 발코니나 테라스에 작은 정원을 만들 때나 창문 언저리를 화분으로 장식할 때, 혹은 광장이 나 하천의 청소를 할 때에는 아동들이 매우 흥미롭게 참여하였다.

가족교육기관이 매우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분야들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기관이나 요구에 따라서 의식수준은 매우 다양하고, 장애인, 편부모, 외국인, 환경, 평화, 여성 등을 위한 특수 단체들은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교육기관이 그러한 문제제기에 감각화 되 고 적합하게 교육받은 협력자들을 잘 배치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백 한 요구가 있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만남의 형태는 항상 같다. 함께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고, 사건들의 정서적인 면을 표현하게 하고, 그런 유형의 문 제를 혼자서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객관적이 되고, 그리고 연대조직을 만든다. 그러한 일 들은 엄청난 요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일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심리 적 도움이 주어질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

80년대 이후에 가족교육기관의 숫자는 특별히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기관의 기능의 다양화와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적 해석의 다양성,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각 기관마다 제 나름의 특





성을 지니게 되어서,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는 것이 어렵고, 더구나 비교를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는 독일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정착시키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면서 삶의 방식이나 가족의 요구가 다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합법적 결혼이 아닐지라도 대중의 비난을 받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무렵부터 가족교육기관에 참가하는 남성의 비율이 약간 올라가고 (10%), 80년대부터 일부 남성들은 '탄생 준비'와 '육아법 시범'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아동은 전체 참가자의 15%를 차지하고, 그들은 혼자 오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오기도 하며, 요리, 만들기, 빵굽기, 춤, 노래, 놀이들의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물론 가족교육기관의 주 이용자들은 여성들로서(70-80%) 점차 취업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Schymroch, 98-99). 그리고 사회활동을 원하는 가정주부들이 가족교육기관의 임시직인력이 되었으며, 전문적인 '가족교육자'(Familienpädagogen)양성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족교육기관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머니 센타'(Mütterzentren)가 등장하여, 주로 중류계층을 수용하는 가족교육기관에 가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이 미용, 재봉, 신체 가꾸기, 아이보기, 충고, 수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그 기관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을 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60년대의 사회정치적 대운동의 연장 속에서 탄생한, 공익의 목적을 가진 시민들의 지역적 주도 운동인 '시민주도'(Bürgerinitiativen)운동과 '자조그룹'(Selbsthilfegruppen)운동의 도구로서 탄생했다.

2-5) 통일 이후의 가족교육기관

통일 이후에 구서독의 가족교육기관들에서는 중류계층의 일반 부모보다는 점점 더 표적그룹(Zielgruppe)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의 연맹 본부가 통일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으로이전하였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구동독 지역에 지부들을 설치하고, 특히 노동자복지-연맹(AWO)에서는 '이동 부모학교'(Mobile Elternschule)의 명칭을 '이동 가족교육'((Mobile Familienbildung)으로





변경하며 모델 프로젝트(Modellprojekt)를 진행하였다.

통합아동보육시설이나 청소년센터 등을 찾아가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력작업을 하거나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하 는 경우가 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옾스타프예'(Opstapje) 프로그램은 1.5세 영아가 있는 가정을 주 1회 놀이감을 갖고 방문하는 2년짜리 놀이 프로그램으로 첫 1년 동안 엄마는 놀이과정을 관찰하고 두 번째 해에는 엄마가 주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받는다.

3세가 된 유아는 'HIPPY KIDS 3'프로그램, 4~5세 유아는 'HIPPY'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1960년대에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던 '히피'(HIPPY : Home Interaction for Parents and Preschool Youngsters) 프로그램은 취학 전 유아가 있는 가정을 주 1회 방문하는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서 자녀 뿐 아니라 성인인 부모의 독일어 습득에도 도움을 준다.

4~5세 자녀가 있는 이주민 가정의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모여서 함께 실시하는 '루크자크 모델'(Rucksack Modell)은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모의 모국어를 자녀들이 배우며,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6) 가족교육기관의 조직망

가족교육기관이 그 착상과 관리에 커다란 자율권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4개의 커다란 연합 조직 중의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 연 맹에의 소속은 정치적 성향과 총체적 오리엔테이션에 따라 결정되고, 또, 공권력,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활동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4개의 연맹은 다음과 같다;

- '가족교육을 위한 조직들의 작업 공동체'(Arbeitsgemeinschaft von Einrichtungen für Familienbildung : AGEF),
- '신교도 가족교육기관들의 작업공동체연 맹'(Bundesarbeitsgemeinschaft Evangelischer Familienbildungsstätte : BAG),
- 가족교육기관들의 작업공동체연 맹'(Bundesarbeitsgemeinschaft Katholischer Familienbildungsstätten:





BAGKFBS),

- '노동자복지-연맹'(Arbeiterwohlfahrt-Bundesverband: AWO).

AGEF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직으로서 초기 연맹의 움직임은 2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활동이 전개되었다.

BAG는 '신교도 어머니교육을 위한 작업공동체'(Arbeitsgemeinschaft für die Evangelische Mütterschulung)라는 명칭으로 1954년에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 탄생했고, 6개 도시의 기관이 여기에 가입했다. 1958년부터는 AGEF의 모든 신교도 기구들은 이중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기 위하여 탈퇴를 결정하였다.

가장 뒤늦게 생겼지만, 1990년 조사에서 115개의 가입기구를 가질 정도로 가장 확산된 연맹은 오늘날의 BAGKFBS이다. 매우 오래 전부터 성인여성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구교도단체들은 1934년에 '구교도 독일여성단'(Katholische Deutsche Frauenbund)과 '자선협회'(Caritasverband)의 주도로 '구교도 여성 및 어머니협회의 작업공동체'(Arbeitsgemeinschaft der Katholischen Frauen- und Müttervereine)라는 단체로 연합되었고, 그 단체의 특수한 임무 중의 하나가 바로 '구교도 어머니교육작업'(Katholische Mütterschulungswerk)이었다. 그러나 이 기구는 생기자마자 본래의 모습은 금지당하고 나짜에의해 국영화되었다.1970년부터는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복지-연맹'은 독일 노동자 운동(Deutsche Arbeiterbewegung)의 범주 내에서 1919년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원조와 노동자단체의 경험에 근거한 교육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1975년에 평생교육법(Weiterbildungsgesetz)이 제정되었을 때, 대부분의 기관들은 '어머니 학교'의 명칭에서 '가족교육기관'과 '교육작업'(Bildungswerke)의 명칭으로 전환했다. 이 연맹은 사회민주주의의 전망 속에서 일하고, 자조(Selbsthilfe)를 촉구했으며, 놀이서클, 상담 및 충고, 청년클럽, 숙제원조그룹 등의 활동들도 포함했다.

1983년,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에만 31개의 교육기구가 있었고, 그 중 20개는 '가족교육작업'(Familienbildungswerke), 혹은 '가족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가졌으며, 147,538시간의 수업과 38,075일의 교육을 실행했다. 그 중 91,988시간과 35,845일은 주정부에서 주관하였다(Jeong, 1993, 310). 그러한 교육들은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준비된다.





1960년에는 라인란드(Rheinland)에 '순례 어머니학 교'(Wandermütterschule)가 설립되었고, 70년대에 '이동 부모학 교'(Mobile Elternschule)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25년 동안, 536개 장소를 방문하였고, 2,912강좌를 제공하였으며, 120,000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초기에는 참가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으나, 1985년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52%, 남성 11%, 아동이 37% 참가하였다(Jeong, 1993, 312).

이상과 같은 구분방식은 물론 독일연방 사회의 삼지주 체계를 반영한다. 삼지주란 국가, 교회, 복지단체를 말하고, 복지단체는 조합적 조직, 상호신용조직, 민중교육조직 등 사회적-기독교적-민주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조직들을 말한다. 조직망의 각 연맹에서 만남과 협의가 규칙적으로 있었지만, 이중적인 소속은 인정치 않았다. 협력은 1970년 이후에 강화되었고, '가족교육기관'들은 '신구양교동권의 교육사업'(Paritätisch Bildungswerk)과 같은 다른 기관들, '부모학교'들(Elternschulen), '시민주도'들(Bürgerinitiativen), '자조 프로젝트'(Selbsthilfeprojekte), '민중대학'들(Volkshochschulen)이나 '새교육 등록협회'(Neue Erziehung E.V.), '사회봉사가족 등록협회'(Sozialer Dienst Familie E.V.) 등의 기구들과 강력한 경쟁관계에 들어갔다.

평생교육 부문과 가족교육 관련 분야에는 종파적 연맹이외에도, 비종파적이고, 비정치적이고자 하며, 공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인 '신구양교동권의 교육작업'(Paritätisches Bildungswerk)이라는 연맹이 있다. '독일 신구양교동권 복지단체'(Deutsche Paritätische Wohlfahrtsverband)로부터 시작하여 1964년에 사회사업 분야에서의 법률적으로 자율적인 기관들을 집결시켰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였고, 그 활동은 자치와 참여정신을 가진 성인교육과 계속교육의 모든 면에 관련된 것이다.

3. 영어권 국가들에서의 부모교육

3-1) 영국

프랑스와 독일에서처럼 영국에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부모에게 충고하





는 문학작품이 이미 오래 전에 있었다. <u>교육에의 사고</u>의 저자인 로크 (Locke)는 자신에게 상담요청이 자주 있었다고 보고한다. 룻소와는 반대로, 그가 보기에는 어린이는 부패상황에 자연스럽게 던져진 존재이므로 어린이에게 미칠 수 있는 불길한 영향에 대항하여 부모들을 경계시켰다.

오래전부터 영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부모들을 보조하거나 결혼준비를 시키기 위래서 결혼상담소와 가족토론사무소(Family Discussion Bureau) 라고 명명한 기관들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정신위생센터, 유아 가 이던스(Guidance) 센터, 매 출생 때마다 가정을 방문하는 위생방문원 (health visitors)들도 있었다.

10년 또는 20년 단위로 각급 학교교육에 대해 자체평가를 하는 영국정부는, 그 평가를 통하여 부모교육의 방향을 수정 혹은 결정하는데, 1967년의 "플라우던 보고서(The Plowden Report)"의 내용은 그 이후 영국의유초등교육과 부모교육의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진행되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는 빈곤층을 위하여 영국정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보육, 조기교육, 장애아동 교육, 건강, 가족지원 서비스 등 자녀양육과 가정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통합 서비스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하여 neighbourhood nurseries, early excellence centre 등과 같은 기존의 보육관련시설을 활용하거나, Sure Start Children's Centre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3-2) 미국

부모교육이 미국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확산이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다. 이 신생 국가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인간의 개별성과 자 율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자유롭게 발달할 수 있었다. 그래 서 부모교육도 이러한 이념들에 적합한 기능을 하도록, 특히 청년기에 이 런 이념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교육적 태도를 선호하게 되었다.

종족이나 문화,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사회적 규범, 국가의식 등을 심어주어야 했던 미국은 사회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유아교육 및 부모교육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였던 것이다.

1815년부터, "모성협회"라는 이름으로 도덕적, 종교적 목적으로 모이는 여성들이 있었고, 잡지들이 매우 많이 발간되었다. 유치원들은 유아들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건립되었으며, 심리학에의 관심은





강렬했고, 스탠리 홀(Stanly Hall)이 창립한 아동연구협회(Child Study Association)에 의해 1893년부터 심리학은 일반인들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했다. 대학의 연구소들, 많은 협회들, 종교 집단, 학교, 병원, 주정부, 재단들, 연방 부처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속에 가정교육을 집어넣었고, 경험적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였다. 1909년의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s)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동과 가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미국과 외국의 유명한 전문가들을 초대하였다.

아동국(Childrens Bureau)은 가장 최신의 학문적 결과들을 수록한 <u>아</u>동보호(Infant Care)를 부모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출판했고, 그것은 정부가 하는 최초의 대대적인 부모교육 확산이었다. 부모교육 국가 위원회(National council of parent education)가 최대한 협력하였고, 이념적 차원에서 사람들은 양극 사이에서 동요했다. 하나는 인간적 자질의 자유로운 개화로 여겨지는 교육, 다른 하나는 사회 규정에 적합한 수용의 개념으로 여겨지는 교육이었다.

미국인들의 정신적 구조 속에 1세기 전부터 자리 잡은 이 대규모의 교육적 행동은 제 1차 세계대전 무렵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심각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응답하였다고, 청소년 범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들은 수많은 빗나간 행동들의 사회적 요인들을 지적했다. 좋은 성격을 획득하기 위해 긍정적, 부정적 강화의 사용과 규칙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신분석학은 콤플렉스의 원천과 같은 교육적 속박의 분위기를 고발함으로써 미국식 교육의 아나키스트적 경향을 강화시켰다.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심리학적 사실들이 밀물과도 같이 들어와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억압하는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게 되었다.

1차 대전 이후에 미국 정부는 부모교육의 의학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신위생에 대해서 우려하였다. 그래서 심리분석과 정신분석 요법에서 나온 방법들이 점점 더 강조되었다. 1930년대의 경제공황의 시기에 공적 지원은 줄어들었고, 1946년에 스포크 박사(Dr Spock)에 의해 출판된 육아 및 아동 돌보기에 관한 책은 어머니 세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초판에서 그 책은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민주적 가정의 이상을 권했으나, 곧 이어 비판에 의해 좀 더 강력한 부권의 감각 속에서 수정되어야 했다.

60년대에는 빈곤계층의 아동들이 좀 더 평등하게 사회 속에 포함되도





록 돕기 위해 보상교육의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존슨(Johnson)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대규모의 개입 프로그램과 함께 제시했다.

개입 프로그램

계층과 수혜자의 측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중류 계층을 위한 예전의 방법도 병행되었다. 정책적 토대와 거시사회학적 목표의 사 업이 서로 겹쳐졌고, 민주주의적 염려에 의한 기회균등과 내부적 안정을 향상시키고, 공급자원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젊은이들을 국가사회적 조직망 속에 좀 더 긍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인간적 발달에 박차를 가하려는 목표를 가진 이 프로젝트들은 범학문적 팀에 의해서 재고되었지만, 사회적, 의료위생적, 교육적인 측면 등 부분적 으로 좀 더 강조된 영역들이 있었다. 가정에서 적용되는 수준은 매우 다 양하여, 행동이 아동중심적이거나 부모중심적이기도 했으며, 모든 가족구 성원과 함께 총체적으로 고려되는 시스템적이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매우 일반적인 목표설정을 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하고 잘 못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교사의 행동이 똑같은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금방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정이 소외계층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항상 장기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확인했다. 부모들의 교육적 자원을 전문인과 파트너 관계 혹은 동등한 수준으로 동기화시키고, 그들의 활동과 참여를 촉구할 뿐 아니라부모들 주변 환경의 지식을 활용하고 다른 부모들을 이끄는 중개 활동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이상적이다.

외부에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근접 혹은 먼 환경 요인들의 총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 즉각적인 성공에 의해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획되었다. 존 슨대통령에 의해 1964년에 창안되어 천만 명에 가까운 젊은 미국인들이접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구성원들을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이계층 출신의 인적 자원들을 고용하여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정식의 치의료적 치료를 보장하고, 장애인(신체적, 지적) 가족들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아동들의 인지적 발달을 자극하기 위해 자연학습의 경험을 시키며 학교생활을 좀 더 잘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여름방학 동안 기존 유아교육 시설을 이용하는 단기 보상교육이었으나, 시간과 더불어 반일제 또는 전일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되었다.

행동주의, 칼 로저스(Karl Rogers) 방식의 인본주의, 정신분석학(미국식의), 상호교류분석, 인지주의 등 심리학과 교육심리학의 여러 조류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줄지어서 매년 탄생하였다. 일부는 대중에게 총괄적으로 보내졌고, 다른 일부는 특정 그룹(편부모, 미성년부모, 영유아 부모)에게 주어졌다. 어떤 것은 좀 더 의학적 토대를 가졌고 (예를 들면, 영아 사망을 막기 위해), 어떤 것은 심리사회적 오리엔테이션의 토대를 가졌다. 또 어떤 것은 매우 정보적이고, 어떤 것은 관계와 상호작용을 돕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아를 언어적으로 자극하고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방식들을 풍부히 하고 다양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단순한 재료의 제공과 더불어 놀이 기법을 일반화시킨다. 또 다른 것은 각종 이론과 방법을 조합시킨다. 인지적 측면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선호하려는 유혹이 크고 사회-정서적 요인의 억제행동을 무시하려는 유혹도 크다.

이 개입 프로그램들은 많은 에너지와 정열을 낳았고, 예기치 않은 변태적인 효과와 문제점들도 확인되었다. 사회적 개입이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해롭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평가의 관점에서, 장기간 동안 수행되어야 하는 종단적 연구들과 행동 및 삶의 방식의 변화와 같은 질적연구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양적 연구들보다 어렵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한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지만, 활동이 계속 연결되지 않으면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효과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확인했다. 아동이 사는 환경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을 변화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부모들과함께 총체적 교육 내에서 이런 개입의 혜택을 입었던 청년들은 청소년 범죄에 덜 노출되었고, 보다 확고하고 역동적인 직업 활동을 영위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들 부모들을 능동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성공을 위한 최선책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고, 이어서자녀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기대,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을 발달시키기 위





한 지대한 관심, 감수성, 부모 자신의 교육적 역량에 대한 좀 더 큰 신뢰, 등이 그들에게서 확인되었다.

개입 프로그램은 비용의 효율성, 방법론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분과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빈곤 문화"속에서 그들의 언어, 가치체계, 그들 자신의 참고사항을 가진 인간들에게 외부적으로 작용할 권리가 어느 한도까지인가? 이처럼 외부에서 변화의 의지가 부여될 때, 그것은 불가피하게 중류계층의 이념의 감각 속에서 문화제거 작업으로 갈 것이 아닐까?

대상 인구가 그들 스스로에 의해 활동적이 되고,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그들의 문제를 자각하는 작업과 그들이 마음대로 선택한 방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닐까?

미국식 모델의 확산

오로지 전문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사회활동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을 확인한 즉시, 퀘벡에서 진행된 "공동체화 (communautarisation)" 정책은 민중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역동화시키려 하고, 가정교육이 교육적 계획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표를 가졌다.

전문가는 자신이 부족함과 부정적인 면을 느끼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책임, 힘 등을 자신이 역동화시켜야 할 사람들과 나누어 갖게 되었다. 도움의 목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들 상황의 주인이 되고 그들 자신의 발달을 관리하기에 적합하게되도록 하는 것, 즉, 자율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삼기(empowerment)"를 말했다.

그러한 미국식의 개입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한국의 예를 들 수도 있다.

벨기에 몽스(Mons) 대학의 CERIS에서 뿌흐뚜와 교수 역시 이런 유형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 실시하였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실직 여성들을 그들이 속한 계층의 가정교육 전문가로 만들려는 연수교육이었다. CERIS의 작업에 재정적 지원을 했던 네덜란드의 Van Leer 재단은 전 세계의 영유아들을 위한 십여 개의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되거나 지원을 하였다.

독일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생태학자인 하쎈슈타인(Hassenstein) 교수





의 지도 하에 발드슈트(Waldshut)의 소도시에서 실험한 이후에 바덴-뷰르템베르그(Baden-Württemberg) 주에 의해 채택된 개입 프로그램이 있다. 아동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자 관계의 부실함에 의해 야기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성결핍에 저항할 것을 제기하였다. 방대한 프로그램이 편모들을 위해 채택되었고, 그들이 오로지 자녀교육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을 수락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전문가들과의 만남에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집에 오도록 허락한다면, 3년 동안은 최소한의 가족수입을 보장해 주었다.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덕분에 이 프로그램은 모든 주에 확산될 수있었다. 그렇지만, "피동적 감금" 생활을 했던 이 여성들 중에 차후에 직업생활에 종사하기가 어려워진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III. 한국에의 시사점

기술적 수준의 부모교육이라는 아이디어는 사방에서 문화적 질서의 장애물을 만난다. 초기에 이 교육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하고 방해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엉뚱하고 주제넘게 보이기도 했다. 교육과 학교는 아동들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뒤집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무슨 권리로 사적이고 은밀할 수밖에 없는 가정 영역을 침범하려 할 수 있을까? 이점에서 앵글로색슨 계통의 국가들에서보다 라틴문화의 국가들에서 망설임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압하는 전통이 없는 새로운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고가 오래 전부터 사회 여러 계층의 사생활에까지, 때로는 가정생활에까지 침투된 나라인 미국에서 이것은 가장 잘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12월 31일자로 재정 공포(법률 제 3648호)된 사회교육법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11230호, 1983)에서 사회교육의 10 개 영역 중 네 번째로 가족생활교육영역이 명시되면서 제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연과 정혜정(1996)은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리므로, 문제발생 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상담이나 치료보다도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면





개인과 가족생활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족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은 가족 구성원들 중 부모를 아동의 교육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본다. 반면 독일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각자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총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실천이 상당한 역사를 쌓아가며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의 분단을 경험한 나라로서 전쟁과 통일을 경험하며 가족 간의 분열, 과거와의 단절과 화합이라는 복잡한 가족사회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 중에서 가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숫자가월등히 많고, 사회 발전 속도에 비해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확고한 사회적 기반과 일반인의 공통적 인식을 통해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가족교육기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 방안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는 1863년 5월 라살레(F. Lassalle)가 라이프찌히 (Leipzig)에서 '전독일 노동자 총동맹(Der 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 ADAV)을 결성하고 노동자들의 결속을 꾀한데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은 보수적인 집권정부의 간접적인 탄압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사회의 저변층으로 계속 조직을 확대해 갔으며 사회적 해방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여성운동이나 청소년운동 등도 독일사회민주당이 당세 확장을 위해 권장·육성한 정치적 '프로젝트'였다고 볼 수있지만, 그러한 운동 덕분에 독일에서의 가족문화교육은 좀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독일의 상황은 독일에서의 가족문화교육의 발전은 '가족교육기관'의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정책과 다른 부수적인 사회교육들이 서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게 한다.





그러므로 한국가족문화교육은 시대적 상황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조직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적인 정책이나 일반 사회교육과** 서로 맞물려가야 한다.

프로그램의 전개방식이 강제성을 띤 하향식 행정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가족문화교육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이다.

방법적인 측면을 볼 때,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교육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한 지도자나 전문가가 없이 모여 활동하는 '어머니센터'나 '자조그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도 등장했다. 소외계층, 주변계층, 혹은 새로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을 다룰 때에는 '공동작업'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한국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실습이나 공동작업(놀이, 만들기, 노래, 체조,축제나 견학, 소풍 등의 준비와 실행), 집단 토론 및 상담, 강의 및 강연,주말 프로그램(가족오락, 실습 및 토론의 밤), 열린 만남(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활동중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내부적 차원에서의 가족문화교육의 목표는 가족구성원들의 개인적, 공동적 요구 및 관심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목표를 위해서는, '가족 이기주의'의 성향이 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될 것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적어도 지역사회 내에서의 가족 간의 교류는 촉구되어야 한다.

독일에서 진행되는 모습 그대로의 가족문화교육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은 놀랍도록 확장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새로운 이론에 개방적이며, 요구가 표현되는 것에 따라 그 요구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조건에의 실질적인 적응능력을 보여주었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사회에서의 여성역할에 관하여 매우 혁신적인 토론이 있었을 때에는 '어머니학교'(Mütterschule)라는 이름은 보통 '부모학교'(Elternschule), '가족교육기관'(Familienbildungsstätte), '가족의 집'(Haus der Familie), '파트너쉽 코스'(Partnerschaftkurse), '남성과





여성을 위한 요리 코스'(Kochkurse für Männer und Frauen),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교육과정'(Erziehungskurse für Mütter und Väter) 등과 같은 명칭들로 대체되었다.

'가족교육기관'(Familienbildungsstätte)이라는 칭호를 가장 많이 수용하면서, 어머니들을 가사적 과업과 교육적 과업을 위해서만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요인을 준비하고 총체적으로 가정의 삶에 맞게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발달의 다양한 단계, 가정의 형성에서 해체에 이르기까지 동반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었다.

가족을 전체로서 취급하기를 원했고, 성별이나 세대의 구분을 넘어서려 했으며, 사회적 연계 속에서 가정의 다양한 역할을 재배치하며, 자녀에서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현저한 경험을 제공하고, 교환, 의사소통, 공동체적 삶, 지속적인 관계의 수립, 그리고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문제들의 해결을 의미하고자 하였다.

그 기관들의 성공의 비결은 프로그램 제공의 풍부함과 다양성, 순간의 요구와 경향에의 적응, 인력들의 능력, 믿음직한 이미지에 있다. 전체적 조직체는 매우 구조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지역적 자율권, 즉 중 앙과 변두리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과 더불어 탈중앙집중화되어 있다. 정 기적으로 약간 극단적인 논쟁의 경향이 있지만, 전체 속에서 약간의 소요 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강력한 단체결성의 전통, 존 엄성을 상실해가는 교회들이 사회적, 국가적 상황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지난 세기부터 집중적인 철학적 숙고의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육은 교육적 실험에서 다양한 오리엔테이션에 이르기까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의 가족교육기관들의 조직망은 중앙의 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 분과가 있는 형식이 아니라, 비슷한 활동을 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의 지원을 받고 강사들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연맹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형식을 취한다. 가족문화교육의 '자유시장'을 권장받았고, 국민들의 수준이 가족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독일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 가족교육기관은 없었다. 단지 그 '자유시장'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중류계층에 몰려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조운동' 및 '열 린 공간'의 방법으로 소외계층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문화교육을 위한 자유시장을 권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고객확보를 위하여 고객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적인 것보다는 고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자유시장'은 당연히 전자를 택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자유시장'의 고객은 더욱이 중류계층 이상으로한정될 것이다. 게다가 사회교육의 역사가 짧고, 가족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극히 소수의 국민만이 절감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 '자유시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과 민이 적절히 협력해야한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의 생명력은 정부나 재벌기업처럼 힘 있는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얼마나 독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칫하면, 민은 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하관계가 형성되어서 하향식 행정체제가 다시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자유시장'의 '점포'를 개설하려면 각'점포'가 독일에서처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러한 '자유시장'은 도저히 권장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가족문화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관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가족문화교육의 필요성은 오늘날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 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조건 속에 있었던 국가들에서 시도되었던 방법들이 다른 문화권 속으로 그대로 이식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가족교육기관의 역사적 경험은 경제적 급락을 통해 가정의 붕괴와 가치관의혼란, 세대 간의 갈등의 격화와 가족역할의 혼돈을 더욱 급작스럽게 경험하게 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과 한국가족의 특성에 근거한 미래 한국 가족문화의 방향을 설정하여 바람직한한국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영숙, 정미리(1999). 독일'가족교육기관의 통시적 분석과 한국가족문화교육 프로 그램에의 시사점. 아동학회지 제 20권 2호.





- 정미리 (1994). 한국에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프랑스 "부모학교"의 분석. 충북가 정학회지 제3권 제1호. 충북가정학회.
- AGEF(1982a). Eltern-Kind Gruppen im ersten Lebensjahr. Durchführt nach dem "Prager-Eltern-Kind-Programme" pp. 96-106.
- AGEF(1982b). Materialien für die Praxis der Familienbildung. Neue Projekte, Ansätze, Methoden. 129p.
- AGEF(1984). Neuere Ansätze in der Familienbildung: Berichte aus der Praxis Antworten auf aktuelle Probleme. Dezember. Bonn. 64p.
- AGEF(1987). Frauenfragen in der Familienbildung. 60p.
- AGEF(1988a). Familienbildung aktuelle. Orientierung an gesellschaftlichen Realitäten. 47p.
- AGEF(1988b). Männer in der Familienbildung. Beispiele aus der Praxis. Bonn. 56p.
- AGEF(1989a). Eltern-Kind-Gruppen in der Familienbildung. Bonn. 68p.
- AGEF(1989b). Das Prager-Eltern-Kind-Programme (PEKiP). 4. Aufl. pp.60-62.
- BAG-Info(1984). Die "Erziehungsstunde" im Säuglingspflegekurs und das Spiel "Start ins Leben" 3, 18-27.
- BAG-Info(1987). Spielen und Bewegen Das Prager-Eltern-Kind-Programme (PEKiP). Eine Gruppenarbeit für Mütter/Väter und ihre Babys ab der 6 Lebenswoche, 1987 August, pp.25-27.
- Dax, H.(1978). Eltern-Kinder-Arbeit. Ein Erfahrungsbericht. BAG-Informationen, Juli 1978, 2, pp. 3-6
- Erny, P., Jeong, M.-R.(1996a). Expériences de formation parentale et familiale: France-Allemagne-Belgique-Amérique du Nord-Corée du Sud. Paris, L'Harmattan, 271p.
- Erny, P., Jeong, M.-R.(1996b). Etre parents: Parcours pour une éducation. Chronique Sociale. Lyon.





Gérome, N.(1974). <u>L'Ecole des Parents</u> et Vous. <u>L'Ecole des Parents</u>, 9, nov.

Isambert, A. (1968). <u>L'Education des Parents.</u> Paris, 208p.

Isambert-Jamati, V. et Hubert, C. (1961). Resultat sur l'enquete sur <u>L'Ecole</u> <u>des Parents. L'Ecole des Parents</u> 9, nov.

Jansen, R., Keil, S., Lorenz, Ch., Remy, G.(1981). Mitarbeiter-innen in Familienbildungsstätten. Eine Situationsanalyse als Orientierungshilfe für die Fortbildung.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s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91, Stuttgart, Kohlhammer, 310p.

Jeong, M.-R.(1988). L'Education des parents en France et en Allemagne. Mémoire de DEA en Sciences de l'Education. l'Université des Sciences Humaines de Strasbourg.

Jeong, M.-R.(1993). L'Education des parents: Expériences dans le monde. Perspectives pour la Corée. Thèse de l'Université des Sciences Humaines de Strasbourg.

Lück, C.(1956). Arbeitstagung der Mütterschule. In: Blätter des Pestalozzi-Fröbel-Verbandes7. pp. 156-158.

Schaefer, K.(1978). Thesen zur Eltern-Kinder-Arbeit. BAG-Informationen, Juli 1978, 2, pp. 7-12

Schiedeck, J.(1989). Mütterschulung im Nationalsozialismus. AGEF. 37p.

Schymroch, H.(1989). Von der Mütterschule zur Familienbildungsstätte: Entstehung und Entwicklung in Deutschland. Freiburg, Lambertus, 155p.





토론 1

「부모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

이 혀 아 / 서울대 강사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지난 3월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로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정 부모를 중점 지원하여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며, 부모교육 필요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②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③부모교육 접근성 제고 ④부모교육 전문성 강화 ⑤부모교육 추진체계 정비 ⑥부모교육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늦었지만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모자가정 등 요보호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사후적 접근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가족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 보고 개별가족이 알아서 해결하 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또 한 전적으로 개별 가정과 부모의 책임으로만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과 지 원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문제에 대한 사후치료 적 접근의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가정문제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만 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다(조희금 외, 2013).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건강 한 국가의 기본이 된다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 이념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의 필요성은 누구 나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또한 예방적 차원의 가족정책 중 하나이다. 송혜림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교육부(당 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지원팀이 생기면서 학부모지원센터에서도 학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종교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 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 모교육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 각해 보았다.

가장 먼저 2012년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교육부 의뢰로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교육청을 돌아다니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밥상 머리교육을 하러 분주히 쫓아다녔던 경험이 떠올랐다. 당시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교육의 확대를 추진했고, 밥상머리교육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2012년 2월 종합 대책이 발표된 이후 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보급하되기까지 불과 몇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조직력으로 단 3개월 만에 단위학교 학부모에게 밥상머리교육의 내용





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조직력 이면 정책적으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한창 밥상머리교육 강의를 하러다니다 보면, 낯익은 학부모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어디서 뵈었는지 여쭈어보면 저의 강의를 벌써 어떤 분은 2번째 듣는다, 또 어떤 분은 3번째 듣는다고 하셨다. 강의를 안들어도 부모 역할 잘 하고 계실 것 같은 부모들이 2번, 3번씩 찾아와 강의실을 채우고 있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은 자발적으로 찾아온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꼭 필요한 부모들에게까지 그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조이다.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고 찾아오기 힘든 대상에게 부모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우선 현재 자발적으로 찾아와야만 받을 수 있는 부모교육을 모든 부모 가 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결혼-출산-입학-졸업-입대-취직 등 생애주기적으로 결정적인 시기가 부모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애주기적 계기를 잘 활용하 여 부모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예를들면, 결혼신고나 출생신 고를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시 부모교육을 받 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학령 전환기에 입 학설명회나 학부모총회 등을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부 모는 교육받을 권리, 교육정보를 알 권리,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 할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자녀의 전인발달과 행복에 기 여하는 양육의 책임, 유기, 방임, 학대 등으로부터 자녀를 지킬 책임, 자 녀양육에 필요한 학습을 수행할 책임. 교육활동에의 참여와 교육에 기여 할 책임을 지닌다(교육부, 2013).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임신, 츨산, 양육,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국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는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어야 한다. '부모 교육의무화'로 책임있는 부모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임신





과 출산, 입학 등 가족이 맞이하는 생애전환기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인 만큼 부모교육에의 참여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교육은 부모역량강화를 위해 받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인 만 큼, 부모가 된 이후에 받는 것보다 부모가 되기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장 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받는 워리와 같은 것이다. 예방접종은 해당 질환을 앓지 않게 하고 감염에 대하여 유리한 쪽으로 반 응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 준다. 부모 교육이라는 백신을 미리 맞아두면 나중에 건강한 부모가 되어 건강한 부 모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고 및 대학교육에서 부모교육이 교과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초중고 교과과정 중에 기술가정, 사회, 도덕 등의 교과목에서 가족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 지고 있는데, 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부모교육의 수강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보아 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한 부모교육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강력한 효 과를 발휘할 것이다. 결혼적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등이하 학교에서 학년마다 4시간의 가정교육 강좌 및 활동을 실시하도록 한 대만의 '가정교육법'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현재 여성가 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랄 마련 하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부모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부모교육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각자 산하 기관을 통해 대상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는 학부모지원센터라는 각자의 전달체계를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도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관점에서 보면 전달체계가 어떤 것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영유아기자녀 부모나 학부모 모두가 부모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최종 수요자인 부모의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정책간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이현아, 2012). 즉, 부모교육의 정책 대상인 '부모'를 중심에 두고 관련 부처간 정책을 협의하고, 부모교육관련 민간 협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정미리 박사님의 발표에서 언급하신 독일의 가족교육기관 운영사례나 지자체에 가정교육전문가를 두고 가정교육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대만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도 좋겠다. 부모교육관련 민관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부모교육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 체계적인 부모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겠다. 정책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관계부처간협력이나 민간 협력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마침 지난 3월부터 여성가족부가 부모교육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부모교육 관련관계부처 TF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여가부는 여가부대로,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분주한 5개월이 지났을 것 같다. 지금까지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성과에 기대를 걸어본다.

참고문헌

교육부(2013). 학부모교육 업무 매뉴얼 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우한 부모교육 활성화방안.

이현아(2012).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방안 탐색,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30권 5호.

조희금, 김경신, 정민자,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2013). 건강가정론, 서울:신정.









토론 2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제 구축

김 혜 준 /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 1. 부모교육의 일반적 논의에 대하여
- □ "안봐도 비디오" 안되도록!
- 서울시에서 "공무원이 만들면 안봐도 비디오!"라는 카피를 내세운 적이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었던 걸로 평가됨.
- 정부의 부모교육 강조도 이런 맥락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중요 함.
- 현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모교육 활성화방안'(2016.3.29)을 보면 부모교육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부모교육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적고 있음. (동 계획서 p9~10)
- 그런데 그동안 축적되고 다양하게 전개돼 온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정책 속에 품어내고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움
-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조화(governance)시킬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해야 함.
- □ 교육내용의 표준화, 장점만 있지 않다!





- 현재 정부의 계획을 보면 부모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겠다고 함. 그런데 정부주도의 표준화가 과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
- 부모들은 정부주도의 표준화에 대해 양면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음. 즉 표준화된 내용을 신뢰하는 동시에, 정부주도라는 점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내용의 완성도에 대한 불평을 제기할 것임.
- 정부주도의 표준화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 활성화될 민간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의욕을 꺾을 수도 있음
-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경제학에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 부문의소비 및 투자 감소를 말하는 것. 재정정책을 통한 정부지출의 증대는 그만큼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 즉 축출시켜 버리는 효과를 말함. 한사회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누군가가 그 자원을 활용한다면, 그만큼 다른 경제 주체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제약을 받게 마련임.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교후.





□ '표 파는 곳'에서 '표 사는 곳'으로 바뀌어야한다!

₩ 2016.08.25. 22:55 ♥답글

시고

정부가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무척 반갑네요.. 다만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언드려요.. <mark>현재도 여러 교육기관과 경로를 통해 부모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mark>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어도 시간여 유가 없어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mark>휴일 또는 집근처 보육기관등</mark>을 통해 다양 한 접근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mark>특히 아빠들을 참여</mark>시키는 데에는 <mark>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에서 부모교육</mark>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아빠들의 저항도 덜하고요..^^

또 한가지는 기업/관공서 등에서 이루어지는 직무/구성원 재교육에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넣어도 좋을 듯 합니다. 전에 어 느 강사분이 기업체 강연에서 아빠들이 가족과 친해지는 법(?)이란 주제로 기본과정 정도의 부모교육에 대해 강의를 했더니 의외로 과장-대리급에서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지와 관심이 없는 층을 위해선 이렇게 일부러 부모교육에 대한 노출 기회를 마련해서라도 차춤 관심갖고 다가<u>갈 수 있도록 하</u>면 좋을 듯합니다.. 아, 기업에서 무슨 부모교육<u>이냐..는</u> 반론에는 요즘 30-40대 부모들은 <mark>가족내의 분위기가 업무로도 영향을</mark>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mark>가업입장에서도 구성원의</mark> 업무효율을 배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❷이빠 2016.08.26. 13:22 ⇒답글

신고

<u>캡틴</u>아빠께서 쓴글대로만되면 참좋은데<u>..쉽</u>지않겠죠.^^ 보통 지자체나 특정기관 등등에서하는 교육을 보면 날짜나 <mark>교육시간</mark> <mark>대가</mark> 일하는부모의경우 <mark>참석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많더라구요</mark>.그렇다고 교육을 위해 휴가 내는것도 쉽지않으니. <mark>시간대를 다양하게</mark> 했으면 하는 바램이있네요.^^

└중 일 나라 2016.08:27.00:59 나답글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학부모 모임도 아빠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도 한번씩 하면 좋을텐데요. 감사합니다. ^^

🏰 🕶 이뻐 2016.08.26, 17:55 🖫 답글

신고

사실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요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일단 <mark>정보를 알기가 너무 힘들구요. 담당 기관도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mark> 있어요.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쓰고 한두명 참석하더라도 기록만 남겨놓고 보자 이런 느낌 이거든요. <mark>홍보도 제대로 하고 한곳에서 통합</mark>해서 <mark>쉽게 찾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mark>이 구축되면 좋겠네요.



└፟ 아빠 2016.08.27.01:00 →답글

수정 | 삭제

홍보, 통합! 아주 중요한 지적이군요. 이거 꼭 건의하도록 하게슴다.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의 부모교육 논의는 주로 부모교육 공급자의 관점에서 이루어 져 왔음. 지금부터는 교육수요자의 needs를 발굴하고 그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지를 고민해야 함.
- 실무자가 교육 참여자를 도울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들의 주체성을 일깨우고 당사자의 문제의식을 이끌어내는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부모교육이 효과적, 따라서 양적 성과에 매달 리지 말아야
- 지역 기반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학부모들과 연계된 부모 커뮤니 티를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그리고 '상향식'으로 접근해야 함!





- □ 교육(敎育) 못지않게 운동(運動: movement)도 중요하다!
- 여가부가 부모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부모교육 정보의 노출빈도를 획기 적으로 높이겠다고 함.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발상임
- 이러한 홍보는 민간의 운동 및 캠페인이 더해질 때 더욱 효과가 커짐
- □ 용어를 재검토하자!
- o 父母교육 보다는 家族(문화)교육으로
- 피교육자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음. 따라서 부모교육 보다는 가족(문화)교육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심리적 부담 및 저항을 줄여줄 수 있음
- o 敎育보다는 學習으로!
- '부모교육 참여자를 동원하듯 모으고 교육내용은 계몽적이며 교육 참여 자의 특성과 그들의 관심을 반영하지 못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교육'이 주류를 이루지 않도록 유의해야
- o 강사(講師)는 일 방향적 지식전달을 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므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진 리더(지도자), 코치, facilitator를 검토

Ⅱ. 아버지교육에 대하여

- □ Fathering에는 Parenting과는 다른 접근과 처방이 필요!
- 영유아 자녀에 대한 공동육아 시기를 벗어나면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아버지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 여성가족부 대외협력사업(2011-2012)으로 실시된 용인 느티나무 도 서관의'동네아빠 워크숍'
- "아버지들의 자기 돌봄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권리와 역할에 관심을 갖 도록 하면서 가족 간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





록 유도하기 위해"기획되었음. 당초 '아버지학교'라는 이름으로 기획되었으나 기존에 아버지학교를 참여한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위반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기분이 안 좋다'고 하여 '동네아빠워크숍'으로 명칭을 변경함(여성가족부, 2012:200)

- 가족교육 관련 제1차 전문가 간담회(2015.5.7 개최)에서 논의된 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이 "일과 가정의 양립보다는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라, 아이를 좀 더 잘봐라. 일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하라고 그래. 남편들 입장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자꾸 교육받아야 한다하고 뭐 자꾸하라 그래 이런 느낌을... 일과 가정 의 양립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 얻어진 피곤, 피로, 불안 이런 것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교육. 그럼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 미에서의 돌봄.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지 하지 않나..."
- □ 아버지를 양식(養殖)하려 말고, 자연산(自然産) 아버지를 도와야!
- 아버지들의 자기 돌봄. 자기주도성. 내재동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아버지들을 수단. 도구로써 바라보면서 동원해내려는 발상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쉬움
-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 한계와 향후 과제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실천이 어려우며, 특히 남성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
- □ 남성 강사를 보강해야!
- □ 각급 아버지 자조모임과 연계하는 지역 내 센터가 필요!









토론 3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제 구축 조 민 경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토론 3

학부모 지원정책의 현황 및 발전방안 모색

조 훈 희 / 교육부 학부모지원팀장

1. 서론

우리는 학생, 학부모와 교원을 교육의 3주체라고 말한다. 교육을 통해 학생을 온전히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 정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긴요하다는 의미이다. 아동이 취학 연령에 도달 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이 정서적·인지적인 측면에서 초기 발달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모 든 아동에게 부모는 '생애 첫 교사'의 역할을 하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부모로서 교사와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이슈에서부터 사교육비 문제와 자기주도적 학습, 그리고 대학 입시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의 해답을 구하는데 학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중차대한 이유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 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교육열을 보유한 국가이다. 한국의 문 화·역사적 전통의 맥락 하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이 루어지는 사회적 계층 이동의 유효한 채널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 며, 사회적 자워의 배분에 있어 학력(또는 학벌)을 숭상하는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불만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한국사회의 에너지는 분명 한국이이루어 낸 성공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그 안에서 학부모들의 헌신과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사회 시스템으로서의 교육이 개인적인 차원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하고 국가와 사회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우리 앞에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한국의모든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학부모교육 및 지원정책을 기획하고만들어가는 데 있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정책의 목표이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2009년 학부모 지원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 이후 지난 6년간 학부모의 자 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 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1996년에 법제화된 학교운영위원 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양한 방식의 학 부모회 지원 정책을 통해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 여 학부모들이 손쉽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였으며, 전국 및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협력하여 광 범위한 주제의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술한 학부모교육의 방향에 비추어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 다. 약 1,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다수 학 부모의 폭 넓은 학교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금까지의 학부모 지원정책이 양적 확대와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면 앞으로는 '100만 송이 장미'와 같이 다양한 학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과 지원정책을 준비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교육의 수 준은 학부모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교육정책의 동 반자로 자리매김하여 미래 한국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토론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학부모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학부모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학부모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의제(agenda)를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기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금번 토론회를 학부모 정책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2017년부터 진행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학부모 지워정책 현황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 지원정책의 추진 체계는 아래의 [표 1] 과 같다. 기본계획 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하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가 협력하고 있으며, 중앙 차원의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 차원의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단위학교의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정책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복교육을 실천한다.'는 목표 아래, 학부모교육 활성화, 학부모 학교참여 및 소통 강화, 학부모지원센터 체계화라는 3가지 영역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1] 학부모정책 추진 체계도/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정도(강함: ★ 1)

첫째, 학부모교육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실시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고, '찾아가는 학부모 인식개선 사업'을 전국단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16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녀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16년 상반기 실적1'을 취합한 결과, 초·중·고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한 학부모교육은 약 690만 명(강의, 간담회, 체험활동 포함)이 참여 하였으며, 시·도교육청(지역학부모지원센터)을 통해 공공기관, 민간, 군부대, 종교단체 등을 직접 찾아가서 실시한 학부모교육에는 약 38만 명의학부모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아버지교육, 가족갈등관리를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영역에서는 대표적인 학부모 조직인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2016 학부모 학교참여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배부하였다. 단위 학교의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발간하여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 참여 활동계획을 공모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6년도에는 총 335개학부모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통해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예년과 같이 전국 학교의 학부모회와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며이를 통해 선정한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할 예정이다.

셋째, 학부모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학부모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정책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센터에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²⁾ 제공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여

¹⁾ 교육주제(밥상머리, 자녀이해가족소통, 아동학대·가정폭력·학교폭력·게임중독예방, 선행교육금지, 진로진학 등), 교육방법(강의, 간담회, 체험활동 등), 교육시기(일과전, 일과중, 일과후, 주말 등)

²⁾ 독서를 통한 우리아이 인성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우리아이 유치원·초등학교·중·고 등학교 보내기, 존중과 배려·소통하는 우리가족, 지혜로운 부모·훌륭한 학부모 등





러 가지 이유로 오프라인 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수의 학부모를 위한 것이며, 시도(지역)센터에서는 학부모지원전문가, 컨설턴트, 상담사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학부모의 여건과 요구를 감안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부모교육 담당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의 학부모교육과정 및 교육서 발간, 전북의 놀이교육, 자원봉사활동가 양성 과정 등이 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요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및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 지원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주관으로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지원전문가(컨설턴트, 상담사 포함) 역량 강화 연수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3. 학부모 지원정책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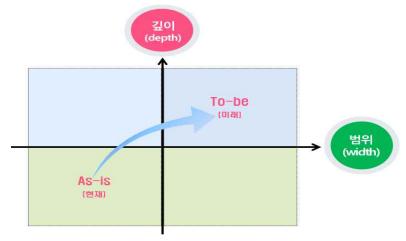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 여 지원정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이를 통해 학부모가 명 실상부한 교육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원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아직 참여의 깊이(depth) 측면에서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학부모가 무수한 직업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대목이다.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지식 뿐만아니라 다양한 역량(competency)을 보유해야만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중1 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중·고 전 학년이 그 혜택을받았으면 한다. 둘째로는 참여의 범위(width)이다. 현재의 학부모 활동은학부모상담, 소수의 학운위원 및 학부모회 활동, 그리고 학부모교육 참여등이 있는데, 아직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얻거나 학교 행사를 지원하거나특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교육을 수강하는 정도로는 부족한 점이많다. 현재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동, 인성교육





및 예술체육 교육활동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제공자(education providers)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학부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학부모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위의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깊이와 범위의 측면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네 가지로 대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학부모에게 손쉽게 양질의 정보(information)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로, 학부모들에게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학교(교직원)를 비롯한 교육주체들과 학부모들이 소통(communication)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학부모 교육(education)의 내용 및 방식을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의 참여(participation)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단이다.

4. 학부모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전술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대책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제공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중심의 기존 홈페이지를(www.parents.go.kr) 개편하여 학부모의 수요에 부합하





는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개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내 흩어져 있는 정책 부서 홈페이지와 교육 정보를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부모가 '상담 창구'를 통해서 교육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온라인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팟캐스트 형식의 실시간 방송채널을 개설하고 교육 주제별로 전문가의 질의·응답 형식의 토크를 진행하여 자녀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 등도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학부모교육에 후원을 하고 싶다면 앞으로 개선될 '학부모 포털 사이트'를 통해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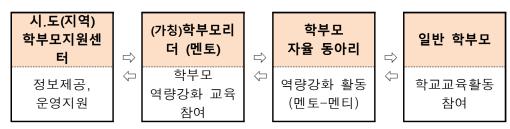
둘째,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들의 다 양한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현재의 학부모 교육과정은 주로 단시간 특 강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봉착한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회기성 교육과정의 기획이 필요하며, 교육방법 은 쌍방향 의사소통(mutual communication)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거나 상담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강사는 지식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촉진 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학부모교육이 기본적으로 성인학습 (andragogy)임을 감안하여 적합한 교육방식과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타 부처와 민간영역에서 그 효과성 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 인 예산 확보를 통해 기존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 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형 밥상머리교육'은 교육적 효과가 높지만 교육부의 자체예 산 없이 기업과의 MOU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일부에서 만(서울, 인천, 일부 광역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전국 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셋째, [표 2]와 같이 학부모교육의 확장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예를 들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공동체'에서 학습지도모임, 동아리 활동, 독서지도모임, 상담, 봉사활동 등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마을단위, 학교단위 등을 통해 학부모가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경력이 단절





된 학부모가 리더교육(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신의 재능을 학교 또는 마을 공동체 모임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여, 현재 전국센터 중심의 워크숍을 동아리별로(권역별 지역 모임) 순환 운영하도록 하여 우수한 타지역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그들 간의유대감 및 전문성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표 3] 학부모 지원의 선순환 체계도

넷째, 위의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육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제31조)과 교육기본법(제5조와 제13조)은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고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학부모 지원정책의 근거는 미약하다. 과거 국회에서도 수차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원입법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정책 전담부서 설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시작하여 각 추진 단위별 역할분담체계 및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학부모정책의 발전을 위한 지난 6년간의 노력을 체계화하고 공식화하는 작업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학생들에게 부모는 '생애 첫 교사이자, 마지막 교사이다.' 교육적으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어떻게 학부모를 지원하여 그들이 가진 교육적 힘을 학생들에게 쓰도록 하는가에 있다. 그 동안 학부모들은 마치 학교교육의 수동적인 보조자로 인식되었고 때론 교육열이 '치맛바람'으로 폄하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은 미래사회의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직업세계는 머지않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이고, 학생들이 곧 직면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성인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보다 미래지 향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에서 내려 온 관행과 현재의 제약 하에서 내리는 판단이다. 학부모 지원정책은 일차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함으로써 궁금증과 불안함을 풀어주는 것이 목표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기에 제공하여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열정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학부모를 통해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1,000만 학부모와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공유하여 미래 교육의 출구를 함께 모색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학부모 지원정책이 교육정책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교육 토론회 -한국의 부모교육 현황과 미래의 발전방향 모색-

이 프로그램 발행자의 승낙 없이 일부 혹은 전부를 복제하거나 전재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해 금합니다.

·발 행 일 : 2016년 9월 2일

·발 행 처 : (사)함께하는아버지들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1-3 지역사회교육회관 5층

·발 행 인 : 김혜준 / 강전항

·전 화: (02)415-7955, (02)424-8377 / 팩스: (02)424-8378

·이 메일: fathersorkr@naver.com / kace@kace.or.kr

·홈페이지: www.fathers.or.kr / www.kace.or.kr